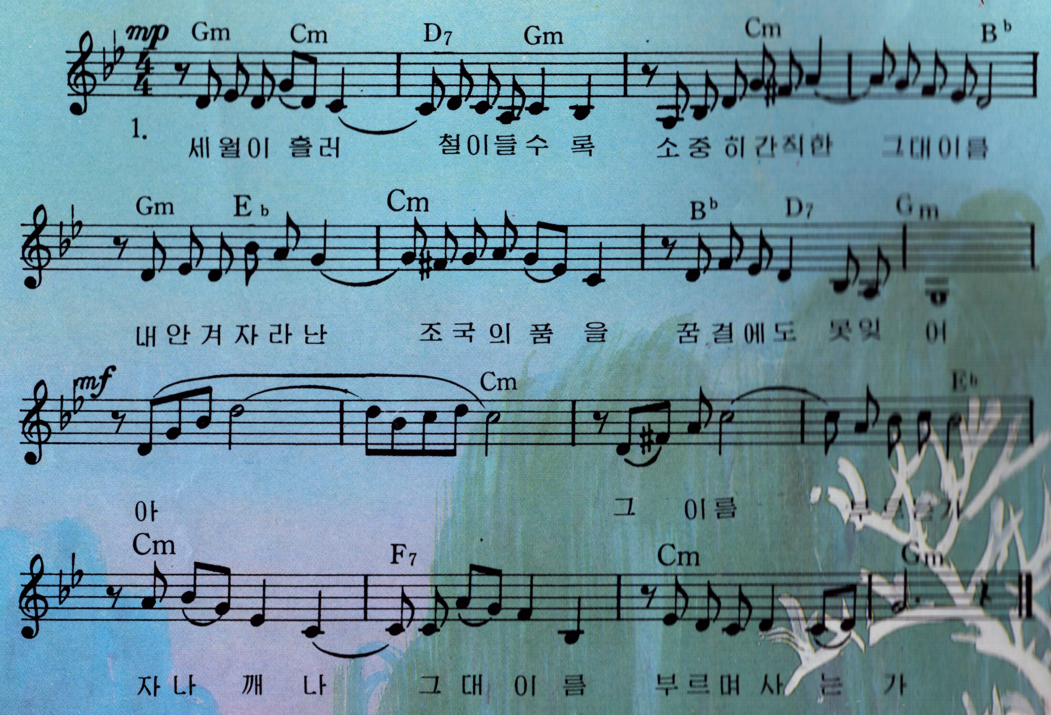금수강산



1
1994

귀중한 나의 조국

좀 느리게 서정적랑만으로 | 리천술 작사 김기홍 작곡



2. 발갈이노래 부르던 기쁨
내 고향 들판에 어려있고
이땅을 지켜온 싸움의 나날도
추억속에 빛나네
아 귀중한 나의 조국
한순간도 너를 떠나 살수 없어라

3. 수령님 한평생 바쳐오시고
우리 당 꽃펴준 이강산
내 사는 조국이 한없이 정다워
어머니라 부르네
아 그 무엇을 아끼랴
둘도 없는 조국을 위해 이 한몸 바치리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1 호(루계 제5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1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은 해외동포들
사진 김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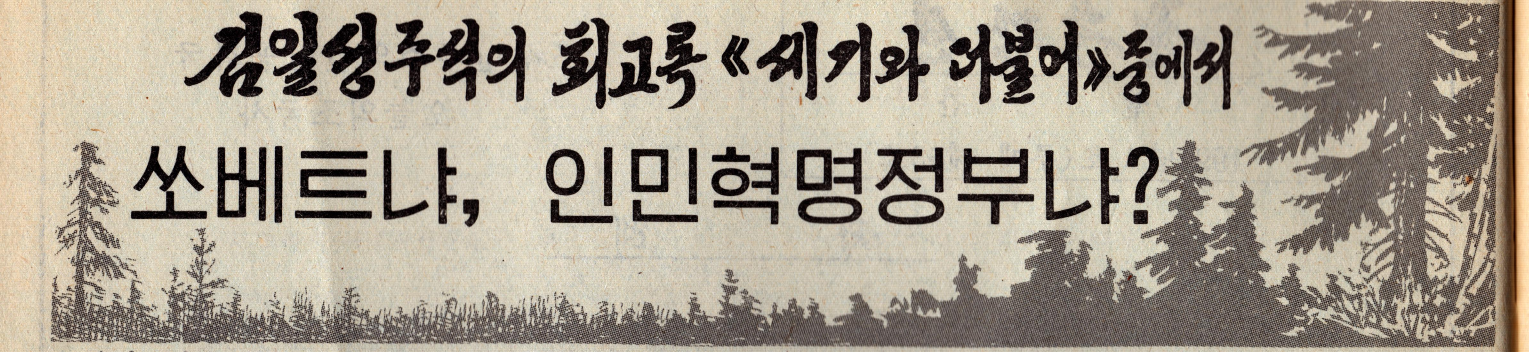
표지 4면 첫눈 내린 평양의 일각
사진 김광진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35225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유격구에서 좌경바람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것은 정권건설분야였다.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편향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모험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의 소부르죠아적조급성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쏘베트건설로선과 쏘베트의 명의로 실시된 일부 시책들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였다.

정권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ㅌ.ㄷ》시절부터 우리의 론의에 올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였다. 정권문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후에 상정해도 될 장래의것이고 또 국권수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그 건설에 착수할수 있는 리념상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형태에 대한 견해는 곧 그것이 어떤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였다.

…

이런 실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토론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있던 청년학생들의 연단에서 정권문제를 크게 상정시키고 치렬한 쟁론을 벌리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후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한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광복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조정치나 부르죠아의회제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31년 12월의 겨울명월구회의에서 정권문제가 론의될 때 우리가 표명한 주장도 본질상 이와 동일한것이였다.

…

처음에는 나도 유격근거지들에 쏘베트정권이 수립된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명칭이야 어찌되였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당시는 《쏘베트열풍》이 온 동만땅을 휩쓸던 때였다. 쏘베트를 수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혁명투사들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류행되고 전파되였다. 그 열풍은 구라파와 아세아를 가리지 않았다. 중국 서금의 중화쏘베트와 웰남의 느구엔-딘 쏘베트의 수립은 그 좋은 례증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으로 본 사람들도 로농쏘베트정권을 론하였다.

국제당 본부에 가있던 조선의 최성우 등이 국제당집행위원회에서 동방부의 일을 맡아보던 일군들(꾸우씨넨, 마지야르, 오까노)과 함께 작성하였던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은 조선의 완전독립과 함께 《로동자, 농민의 쏘베트국가 수립》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쏘베트로선을 지지하고 그를 혁명실천에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의문의 여지조차 가질수 없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였으며 혁명적, 공산주의적 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으로 되고있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말할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의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조직들에서도 쏘베트정권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다. 실로 쏘베트는 전세계 무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리상으로 되여있었다.

쏘베트가 그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은것은 그것이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절대화할 복지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권형태로 인정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상에 대한 동경은 인류가 세기를 두고 꿈꾸어온 념원이고 리상이였다.

로씨야에 수립된 청소한 쏘베트정권은 전복당한 착취계급의 반란을 분쇄하고 제국주의련합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실로 이 세상 그 어떤 정권도 이루어본적이 없는 미증유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쏘베트사회주의의 이러한 개선행진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쏘베트에 대한 숭상을 환상의 경지에까지 떠밀어가게 하였다.

인류가 쏘련을 등대로 바라보고 쏘베트를 모든 정권형태들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것으로 받아들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무리가 아니였다. 쏘련과의 접경지대였고 또 신생쏘련의 영향을 이모저모로 많이 받고있던 간도지방에서 쏘베트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된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

동만땅이 소위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분리된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구역에 남은 지주들은 대체로 반일감정이 강한 애국적인 지주들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왕청골안에서 무장대오를 꾸릴 때 그들은 유격대에 대한 후원도 잘하였다.

그런 지주들가운데 장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적인 중국인지주도 있었다. 1932년봄의 대《토벌》때 간도림시파견대는 그의 집 쌀창고까지 불태워버리였다. 《토벌대》가 총대를 휘두르며 강제철거령을 내리였지만 장시명은 그때 대두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었다. 일본사람들에 대한 장지주의 원한은 그 봄부터 더 깊어졌다. 그는 지주였지만 유격구사람들의 생활을 물심량면으로 잘 도와주었다.

《유격구어른들, 나는 왜놈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이 골안에 그냥 남은 사람이웨다. 저 악귀같은 놈들을 대두천시내에서만이라도 좀 몰아내주시우다!》

유격대원들이 모연공작을 가면 장시명은 이런 부탁을 하였다.

유격구인민들은 그 지주와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쏘베트정권은 이 지주마저 적구로 쫓아버리였다. 장시명이 유격구역에서 내려가지 않게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쏘베트는 그 요구를 외면해버리였다.

《쏘베트정권은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였다. 당신이 반일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지난날 유격구사업을 잘 도와준것은 사실이지만 착취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기때문에 숙청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러니 이고장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반일지주에게 내린 쏘베트의 선고였다.

혁명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던 장시명의 재산은 즉석에서 수탈되여 쏘베트정부가 관할하는 창고로 모조리 들어갔다. 알몸이 된 장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군이 주둔하고있는 대두천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숙청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주들의 장궤속에 있는 아이들의 꽃신까지도 다 털어갔다. 중국사람들한테는 집에 녀자애가 태여나면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간 다음 낳을 어린애에게 신길 신발까지 미리 다 만들어두는 재미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신발을 꽃신이라고 하였다. 돌전애기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살, 두살 올라가면서 문수가 다른 꽃신들을 연방 만들어 장궤속에 간수해두군하였는데 그런 신발가운데는 골무만치 작은것도 있었다.

이런 신들까지 다 수탈해갔으니 그것을 묵묵히 감수할수밖에 없었던 지주들이 유격구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하였겠는가.

소왕청골안에는 유산자들한테서 몰수한 마소가 우글우글하였다. 어지간한 목장을 꾸리고도 남을만한 량이여서 근거지의 청년들은 누구나 다 말을 타고 다니였다. 쏘베트의 치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멋이라면 멋이였다.

좌경분자들은 중국녀자들이 전족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것까지 투쟁대상으로 삼았다.

…

좌경이 얼마나 신성시되였으면 왕청농민들이 한때 과부가 길쌈을 해서 벌어 얼마간 변돈을 놓은것까지 고리대라는 딱지를 붙여 그 채용증을 소각해버리고 본전마저 떼먹었겠는가. 지도자들의 배후조종이 없이는 순박한 농민들이 이런 강짜를 부리지 못한다.

나는 언제인가 왕청에서 리응만중대장이 무장대오에 가입한 경위를 듣고 깜짝 놀란적이 있다.

초기에 무장단에서는 자기 대오에 로동자출신들과 빈고농출신들만 받아들이였다. 그런데 리응만이네 집에는 1만평가량 되는 척박한 산전이 있었다. 이 1만평때문에 그는 빈고농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가 무장대오에 받아달라고 여러번 간청하였으나 동무들은 성분이 나쁘다는 리유로 매번 퇴박을 놓았다. 1만평이면 중농이라는것이다.

리응만은 고심끝에 부모들 모르게 밭을 팔아 장만한 돈으로 브로닝권총 한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무장대오에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때에야 동무들은 그를 무장대오에 받아주었다. 리응만은 유격대원이 되였다고 기뻐하였지만 땅 1만평을 하루밤사이에 잃어버린 그의 가족들은 생존의 길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게 되였다.

좌경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간도땅에 와서 더 굳어졌다. 나는 그때부터 일생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왔다. 간도시절의 체험은 해방후 우리가 좌경을 예방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큰 도움으로 되였다.

번지르르한 혁명적언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며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땅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것이 좌경이다. 변장한 반혁명이 좌경의 모습으로 둔갑하는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자기 진지에 좌경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좌경적인 쏘베트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기였다. 많은 가정들이 쏘베트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리였다.

어느날 밤 나는 대원들을 데리고 2중대 정치지도원 최춘국이 있는 셋째섬으로 가다가 유격구를 버리고 솔가도주하는 한 장년의 가족을 만났다. 대낮에 떠나가다가 붙잡히면 반혁명의 딱지를 쓸수 있으니 밤시간을 택한것이다. 식구는 다섯이나 되였는데 짐짝들은 얼마 없고 알몸에 가까운 차림새였다. 그 사람에게는 안해와 아이들 셋이 올망졸망 달려있었다.

50에 가까운 그 장년은 총멘 군인들을 알아보자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유격대지휘관한테 발각되였으니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댁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추위에 떨고있는 세아이를 한아이, 한아이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수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유격구를 떠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수가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였습니까? 적구에 가면 여기보다 숨이 더 막힐텐데.》

《우리가 왜놈들의 등쌀에 못이겨 유격구에 들어왔는데 그 몹쓸놈들한테야 어찌 다시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에 찾아가서 화전이라도 일구어 연명을 해갈가 합니다.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편할게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마촌보다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고 래일의 생계조차 기약할수 없는 그들에게 과연 마음편한 생활이 펼쳐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해토도 되지 않고 풀도 돋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끼니를 댈 차비새가 돼있습니까?》

《있기는 뭣이 있겠습니까. 가서 기력이 진할 때까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저 그런거지요. 이제는 목숨이 붙어있는것도 막 귀찮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문득 어깨를 떨며 흐느끼였다. 그러자 내 품에 안겼던 세아이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였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입술로 삼키면서 어둠속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이렇게 하나둘씩 다 떠나고나면 구경은 누구를 믿고 혁명을 한단 말인가?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처량한 막바지에 다닫았을가? 쏘베트의 무모한 시책이 빚어낸 후과는 이처럼 파국적인것이였다.

《이제 얼마간 있으면 세월도 바로잡히게 될터이니 너무 락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시국이 평정될 날을 기다려봅시다.》

…

쏘베트정부가 수립된후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조중인민의 관계는 다시금 급격히 악화되였다. 청산된 지주들의 대부분이 중국인지주들이였던것만큼 5.30폭동때와 같은 갈등이 재연된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반일부대들은 이전날처럼 또다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일본군대와 만주국군대는 물론, 구국군도 적이 되고 중국지주도 적이 되였다.

항일유격대는 소규모의 비밀유격대처럼 남의집 뒤골방에 숨어있던 창건초기의 처지와 꼭같은 처지에 빠져 조선사람들이 사는 부락에 조심스레 배겨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별동대라는 간판을 부활시킬수도 없었다. 구국군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꼬리빵즈》라고 답새기였다. 유격대의 활동이란 반지하투쟁이나 다름없이 되였다.

우리가 1년 남짓하게 투쟁해서 쌓아올린 모든 공적들이 억울하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있었다.

쏘베트의 시책을 놓고 우리 동무들가운데서도 분해작용이 시작되였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로씨야에 가서 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배워가지고 와서 새 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간도사람들식으로 하다가는 혁명이고 뭐고 다 망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끼리 투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같지도 않는 혁명을 할바엔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효도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고싶어하는 중국동무 한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쏘련에 가서 공부하고싶어하는 다른 중국동무 한명은 쏘련에 보내주었다.

이런 사태하에서도 유격구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책전환을 단행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동만특위가 지도기관으로 존재하였지만 국제당의 시정방침에 수정을 가할만한 로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

김백룡은 북만에서 한때 현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였다. 간도지방에서 쏘베트조직을 앞두고 선전사업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 해서인지 동만특위를 거쳐 쏘베트정부수립의 첫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왕청 5구에 나와있었다고 한다.

그는 5구에서 쏘베트정부를 내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동만에서 쏘베트를 내오는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때문에 우경기회주의자의 감투를 쓰고 투쟁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나중에는 북만땅으로 쫓겨가게까지 되였다.

리용국이 나에게 김백룡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34년 겨울에 나는 녕안현 팔도하자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김백룡은 거기서 구당서기로 공작하고있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김백룡은 쏘베트시기상조론을 들고나왔다가 우경투항주의자의 감투를 쓰던 1932년 가을을 쓸쓸하게 회상하였다. 이미 동만에서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이 시정되고 인민혁명정부들이 유격구의 정사를 다스리기 시작한지 오랜 때여서 그는 좌경망동적인 쏘베트로선의 제창자들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평하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똑똑하고 대가 바른 동무였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여 쏘베트를 건설하는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들고나오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김백룡은 《그 리유란 단순한겁니다. 가야허에 가있을 때 농민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이 쏘베트란 무엇인지 그 말뜻조차 모르지 않겠습니까. 인민이 알지도 못하는 쏘베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무모한짓 같아서 시기상조라고 했지요.》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인민들이 쏘베트란 무엇인지 몰랐다는 그의 말은 그 당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솔직한 대답이였다.

구쏘베트선거에 참가했던 가야허의 로인들은 쏘베트를 속새포와 혼돈하고있었다.

《쏘베트가 나온다 하기에 왜놈들을 많이 잡을수 있는 속새포가 나오는가부다 하고 책상만 쳐다보았더니 웬걸 속새포는 안나오고 붉은기가 나옵디다그려.》

그 로인들의 말이였다.

왕청 2구쏘베트창립행사에 참가한 마촌사람들가운데는 쏘베트를 쇠버치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어떤 고장 사람들은 쏘베트선거에 참가하러 가는 유권자들에게 《쏘베트가 어떻게 생긴겐지 잘 보고오게. 큰겐지 작은겐지.》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며 또 어떤 고장사람들은 《쏘베트란어른이 온다는데 대접할것이 없어 야단났다.》고 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나물캐러 떠났다고도 한다.

인민들이 이처럼 쏘베트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리해하고 거기에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주석을 가하게 된것은 무식이 빚어낸 웅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그 당시의 해설제강이라는것은 대체로 제목부터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수 없는 외래어투성이로서 《쏘베트란 무엇인가?》, 《꼴호즈란 무엇인가?》, 《꼼무나란 무엇인가?》 하는 따위의것들이였는데 쏘베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전원들자신도 잘 모르고있었다.

좌경의 독소에 중독된 급진분자들은 이처럼 인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쏘베트를 도처에 세워놓고 로동자와 빈고농의 독재를 부르짖으며 혁명이 다된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

동장영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쏘베트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성미가 온화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였으

나 벽창호였다.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사고와 실천에서는 교조를 많이 범하였다.

그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문제에 대한 론의를 하였다. 그날의 론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것은 쏘베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형태로 어떤것을 선택하는가 하는것이였다.

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쏘베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형태라는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형태를 바꾸고 인민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복하였다.

《쏘베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쏘베트의 일부 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동지는 쏘베트로선때문에 통일전선로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리해가 됩니다. 최근 몇달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고해보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쏘베트를 대신할만한 정권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위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쏘베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형태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위서기가 아니였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는 꼼뮨과 쏘베트라는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구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만한 천재가 못됩니다. 맑스주의고전에도 없는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얽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립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수 없었다.

《동장영동지, 프랑스로동계급이 꼼뮨을 내올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로씨야의 쏘베트가 맑스주의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형태였던가요? 쏘베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낳은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로씨야 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쏘베트는 력사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쌈지를 꺼내여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쌈지와 골통대를 들고 다니였는데 로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때문에 유격구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니였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 말을 반박하지 않는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안의 모든곳에서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소왕청유격근거지에는 1.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채벌로동과 류벌로동, 숯구이로동에 종사하고있었다. 그중 500여명은 2구 소재지인 셋째섬에 있었고 나머지 500여명은 방초령에서 마촌으로 넘어가는 령밑에서 로동하였는데 8시간로동제의 혜택을 받았다.

인민혁명정부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개인기업주들은 로동자들에게 종전의 2배나 되는 로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주변의 산림도 자기의 관할하에 두고 통제하였으며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목재를 한대도 베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조치가 발효를 보기 시작하자 대두천에 있는 친화목재소의 일본인소장과 중국인목재상은 유격구에 찾아와 채벌허가를 얻기 위한 담판을 요청하였다. 그 담판이 있은 다음부터 목재업자들과 목재상들은 나무 한대에 1원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피복, 식량, 일용품들을 유격구에 납부하고 목재를 채벌해갔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부락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리수구와 십리평에 있는 유격구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남녀평등권의 실시로 하여 녀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사업에 참가하였다.

유격구에서는 출판소, 재봉소, 무기수리소도 운영하였다.

유격구의 문화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을 두고 부를 명가요들을 수많이 창작해내였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로 이어지는 연극예술의 개화기를 마련하였다.

몰인정과 수탈의 상징으로 되였던 쏘베트란 말은 과거를 추억케 하는 하나의 작은 파편으로만 남게 되였다. 좌경적인 쏘베트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유격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로인들은 등에 대통을 꽂고 자유롭게 마을돌이를 다니였다. 유격구는 또다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웃음소리 랑랑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였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왕청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들에서는 산천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천만가지 꽃망울들의 속삭임과 함께 새로운 생활이 힘차게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생활이 어찌나도 부러웠던지 채사령부대가 소왕청에 인질로 데려온 한 지주의 아들은 유격구에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하였다.

동포애의 인사를 …

고국을 멀리 떨어져 이국땅에서 살고계시는 해외동포여러분!

소리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세월은 1990년대의 또 한돌기 년륜을 새기고 고국력사에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희망찬 새해의 첫 아침을 불러왔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잡지 《금수강산》 편집일군들은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온 강산이 백설의 옷단장을 한 고국의 이 아침은 주체의 태양이 높이 솟아 밝게 비치여 더더욱 찬란히 빛나고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러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이름못할 류다른 감회가 조수처럼 밀려들고있습니다. 그러니 겨레들도 다를바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이 아침은 생각깊어지는 새해의 첫 아침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겨레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한해였습니다.

반동들의 온갖 방해책동이 가해지는 조건에서도 여러분들은 제4차 범민족대회를 성사시켜 조국통일운동을 한걸음 전진시켰으며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운동을 힘있게 벌려 범민련조직을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망라한 폭넓은 조직으로 확대강화 하였습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를 비롯하여 범민련 여러 지역본부 조직들에 더 많은 동포들이 결속되여 통일운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은 그 실례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해외에 있는 겨레들이 애국애족의 한마음 안고 통일적인 운동을 힘있게 벌린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겨레들은 앞으로도 범민련조직에 굳게 뭉쳐 고국인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통일운동을 벌리며 그 소식을 본사편집부에 제때에 전해주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또한 지난해는 여러분들이 본사편집부앞으로 많은 고견을 보내주어 우리 편집일군들의 사업에 커다란 고무와 도움을 준 잊을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끼르끼즈스딴공화국 비슈께크시에서 사는 박 알리위나 알렉쎄예브나를 비롯한 수많은 동포들은 우리에게 잡지 편집사업과 관련한 고견들을 보내왔고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김창운동포를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보여주는 력사자료들과 유적유물들에 대하여 그리고 고국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변모되는 고국의 모습에 대하여 소개해줄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편집일군들은 여러분들의 요구를 존중시하여 그에 맞게 잡지를 편집하기 위해 깊은 주의를 돌려왔습니다.

오늘 잡지 《금수강산》이 어느 정도 해외동포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편집되고 생활의 길동무로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때에 좋은 의견들과 방조를 준데 크게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편집일군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본사편집부앞으로 많은 고견을 보내줄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해외동포여러분! 지난해에 여러분들은 또한 좋은 글을 많이 써서 본사편집부에 투고하여 잡지 《금수강산》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게 하였으며 잡지의 품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본사편집부앞으로 투고된 글은 중국 료녕성 심양시 동릉특별구 교육국 차재영동포,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 베로 베쟌시 차빠예브거리에서 사는 송창희동포의 글을 비롯하여 수십건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편집구성에 맞는 좋은 글로 선택되여 잡지 《금수강산》에 실린 글만 하여도 20여건이나 됩니다.

중국 심양시 여홍구 조선족향 대홍병원 박영화동포의 편지,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제11중학교 교원 김점칠동포의 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자》, 우즈베끼스딴공화국 따슈껜뜨에서 사는 우재국동포의 시 《만경대우물》을 비롯한 여러 편의 글들은 잡지 《금수강산》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그 품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대외무역수출입공사 연길경영부 리춘섭동포의 글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사명에서 나도 한몫》과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예술단 김 림마동포의 글 《삶의 열정과 환희》등 수많은 글들은 독자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고무추동한 좋은 글들이였습니다.

실로 지난해는 해외동포들이 잡지 《금수강산》의 면모를 개선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한해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시는 동포여러분!

올해는 조국통일의 원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해입니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압살하려는 책동이 우심해지는 조건에서 해외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적들과 싸우며 고국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잡지 《금수강산》이 겨레들의 애국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길동무가 되도록 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집일군들은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잡지의 편집사업에서 진일보가 이룩되도록 마음과 뜻을 합쳐 좋은 의견과 함께 많은 글을 써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잡지 《금수강산》이 겨레들속에서 애독되는 사랑받는 잡지로, 통일애국운동에서 훌륭한 길동무로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뜨거운 동포애의 인사를 보냅니다.

잡지 《금수강산》편집부

축원의 마음

승리와 영광의 새해 첫 아침이 밝아왔다.

새해 1994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뜻깊은 해이다.

이 아침 나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운명의 은인이시며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나는 비록 몸은 이국땅에서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국땅에 가있다.

나의 남편 공화국영웅 안동수는 일찌기 귀국하여 경애하는 주석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에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땅크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되였다.

나는 1989년 9월 아들딸을 데리고 오매불망 그리던 조국을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 가족을 만나주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나는 먼저 우리 가족의 충성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주석께 정중히 드리면서 만수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렸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감사하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안동수동무가 전사한후 이때까지 혼자서 아들딸을 잘 키운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거치른 이국땅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가슴속에 쌓이고쌓였던 설음이 한꺼번에 녹아 눈물이 걷잡을새없이 흘러내렸다.

이날 주석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안동수동무를 105땅크사단 문화부사단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생활과 투쟁업적에 대하여 상세히 회고하시였다.

세월이 가져다주는 망각은 자기의 흔적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정다운 사람들에 대한 표상까지도 지워버리기 마련이여서 나도 남편없는 생활에 습관되여 버렸다.

하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 세월이 네번씩 지나갔어도 주석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 몇번 만나시였던 저의 남편을 잊지 못하시여 뜨겁게 추억해주시니 그 숭고한 사랑과 의리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오찬회장에서 주석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오늘 이렇게 가정적분위기속에 모였는데 안동수동무의 술잔을 가져다놓고 먼저 그를 추모하여 잔을 들자고 제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에서는 유격대원이 희생되면 희생된 동무의 술잔에 술을 부어놓고 모두 잔을 찧었다고 하시면서 안동수동무의 술잔에 잔을 찧자고 이르시였다.

살아생전에 정치적생명의 은인이 되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도 40년 세월이 지나간 오늘까지 못잊을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진정 혁명전사들에 대한 의리를 세상에 가장 귀중한 인간륜리로 여기시고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를 펼치시는 위대한 인간애속에 조국의 수많은 아들딸과 함께 나의 남편도 살아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계속하여 40년동안이나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산다는것이 헐치 않은 일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며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나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안 워또르라고 말씀드렸다.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이국땅으로 흘러갔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 4대를 이어 이국땅에서 살아오는 과정에 우리는 성만 조선성이지 이름은 다그 나라 이름을 가지게 되였던것이다.

주석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그럼 조선이름을 하나 지어야 하겠다고 하시더니 유명한 묘향산에서 만났다는 의미에서 안향산이라고 부르자고 하시였다.

향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주석께서는 그를 정답게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조국을 위하여 투쟁한것처럼 대를 이어 조선사람으로서 조국의 통일과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저와 딸의 이름도 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훈장대신 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나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를 친히 손목에 채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와 친애하는 비서께서는 나의 70돐생일을 헤아리시고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조국에서 제가 살고있는곳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위도와 경도를 넘고넘어서 지구의 거의 반을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경애하는 주석께서와 친애하는 비서께서는 70돐생일상이 제때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행기까지 띄워주시였다.

나는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의 품은 경애하는 주석과 친애하는 비서의 품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나는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강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조국의 통일과 애국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한다.

정일심

우리 인민의 설풍습

우리 인민은 해마다 양력 1월 1일이 되면 민속명절인 설을 쇠고있다.

옛기록에 의하면 설은 《세수》, 《년수》, 《원단》, 《원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한해의 첫날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설맞이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명절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설맞이를 위하여 성의껏 준비하였다. 섣달 그믐날에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묵은 먼지를 털어냈으며 밤에는 집안팎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설음식(세찬)과 새 옷(설빔, 세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새해 정월 초하루날에는 우선 집안의 웃어른들에게 설인사를 드리고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을 찾아가 새해의 건강과 보다 큰 행복을 축원하는 설인사(세배)를 나누었으며 특색있게 만든 설음식들을 나누어먹고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하며 즐기였다.

지금 고국에서는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학생소년들이 성대한 설맞이공연을 진행하는것으로부터 설맞이를 시작하고있다.

설맞이공연에서 이채로운 장면의 하나는 공연에 앞서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무대에서 관중을 향하여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설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새해 아침이 밝아오면 수도시민들은 평양의 만수대언덕우에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찾아 만수축원의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며 새해 설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집안의 웃어른들에게는 물론 친척들, 이웃들, 동무들간에 설인사를 나누며 행복과 건강을 축원한다.

설날에 우리 인민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알뜰하고 화려하게 하여 명절분위기를 한층 돋구고있다.

새해 아침에 세배하러 다니는 사내아이들은 색동저고리에 남색바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색바지를, 처녀아이들은 색동저고리에 다홍색치마를 만들어 입어 이채를 띤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고름과 허리띠에도 여러가지 장식을 한다.

설날음식은 세찬이라고 하여 한해 음식중에서 가장 뜻있는것으로 되고있다.

세찬에는 특색있는 음식인 찰떡, 설기떡, 절편과 같은 떡과 여러가지 당과류, 수정과, 식혜, 고기국, 과실, 술들이 마련되며 특히 떡국과 만두국은 설명절음식으로서 빠져서는 안된다.

찰떡은 찹쌀을 시루에 쪄서 떡판이나 떡구유에 담아 떡메로 쳐서 만든 떡이므로 흔히 친떡, 인절미라고도 한다. 이 떡은 맛이 있는것으로 하여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 고급한 떡의 하나로 일러왔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에는 명절때나 잔치에 찰떡을 쳤는데 떡치는 소리가 높아야 명절분위기가 더 나고 잔치분위기도 더한층 돋군다고 하였다. 찰떡은 대개 콩가루, 팥, 참깨, 꿀 같은것을 고물로 한다.

설기떡은 쌀가루를 반죽하지 않고 쪄서 만드는 떡으로서 시루에다 찐다 하여 일명 시루떡이라고 한다.

절편은 흰떡의 하나로서 흰 쌀가루를 반죽하여 시루에 쪄낸 다음 잘 쳐서 만든것이다.

수정과와 식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청량음료로서 주로 설명절에 만든다.

수정과는 생강과 설탕(물엿)에 물을 붓고 함께 끓이다가 그 물에 곶감을 담그고 계피가루와 잣을 띄워서 꼭 봉해두었다가 설날에 마신다. 식혜는 흰쌀밥을 길금가루에 삭힌것에 단물이나 꿀물을 타서 만든 음료이다.

수정과와 식혜는 모두 차고 시원한것으로서 아직 바깥날씨가 추운 정초에 따뜻한 방안에서 마시기 위하여 만든 음료이다. 수정과와 식혜는 우리 나라에 독특한 음료로서 예로부터 설명절을 특색있고 즐겁게 하는 음료의 하나로 쳤다.

떡국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겨울철음식이면서 설명절음식의 하나로서 오랜 력사를 두고 널리 알려졌다. 그러므로 설을 쉴 때에는 반드시 떡국을 먹는것으로 여겼기때문에 《첨세병》(나이를 한살 더 먹으면서 먹는 음식)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었다.

옛날 책들에 《항간에서는 소년들의 나이를 물을 때 흔히 말하기를 〈이제 떡국 몇그릇째 먹었느냐?〉고 한다.》고 씌여있는데 이것은 새해에 나이가 몇이나 되였는가 하는 물음으로 통하는것이였다.

만두국은 우리 나라 서북부일대에서 흔히 설명절에 만들어먹는 음식이였다.

설음식은 그 종류가 헤아릴수 없이 많고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그 어디에서나 제일 인기있는것은 떡국과 만두국, 식혜, 수정과, 강정, 과줄 같은것이다.

예로부터 설명절에는 술을 마시였는데 《세주불온(설술은 데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여 찬술을 한잔씩 마시였다.

이것은 정초부터 봄을 맞는다는 데서 생긴 풍습이였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아래사람이 어른들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것을 례절로 지켜왔다. 그러나 설날에만은 설술이라고 하여 한잔씩 마시는것이 풍습으로 되여왔다.

설에 마시는 술은 도소주라고 하였는데 이 술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있는것으로서 설명절에 마시기 위하여 특별히 고은 술이였다.

도소주는 란초, 육계, 백출, 길경, 방풍 등 여러가지 고려약재를 넣어서 만든것으로서 설에 이 술을 한잔 마시면 한해동안 아무런 병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날에는 이런 특색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아침에는 집안식구들끼리 즐겁게 식사하고 그다음에 세배하러 오는 사람들과 이웃들이 찾아오면 대접한다.

이날에는 집안의 제일 웃어른이 계시는 집에 따로 난 자식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보낸다.

설명절에는 가정들에서뿐아니라 식당들에서도 특색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양력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상전래의 풍습 그대로 음력설도 즐겁게 쇠고있다.

본사기자 김금숙





설날아침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묶음을 드리고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린다.



설맞이공연을 앞두고



설인사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설음식 몇가지

기계화의 높은 언덕에서



풍년든 낟알을 걷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 기계화작업반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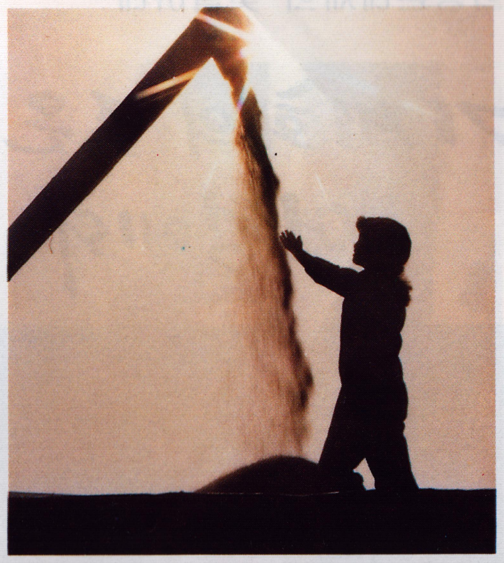
풍년든 논벌에서



풍년든 논벌을 달리는 벼수확기의 동음소리도 흥겹게 들린다.



노을비낀 간석지논벌



수확기로 탈곡이 한창이다.



농장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사들이 논벌로 찾아온다.

본사기자 황득범



새벽안개 서린 농촌풍경, 남새도 풍년

지난해 10월초순경 우리는 서해간석지벌에 자리잡고있는 온천군 운하벌의 6월3일협동농장을 찾았다.

마을어귀에서 농장책임일군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벌에 나서는 우리를 보고 걸어서야 언제 이 넓은 벌을 다 보겠는가고 하기에 우리는 차에 올랐다.

그 어데라 할것없이 가을의 풍만한 정서가 안겨오는 벼바다가 차창밖으로 일망무제하게 펼쳐져 은연중 감탄하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풍년이삭들이 설레이는 포전을 누벼가는 벼종합수확기들의 모습이 점점이 눈에 띄였다.

농장책임일군은 자기네 농장이 모든 영농작업을 기계화하여 올해에 만풍년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농장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6월3일협동농장에서 수리화, 전기화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이곳 간석지벌의 관개수로망은 경탄할 정도였다. 마치 자를 대고 금을 긋기라도 한것처럼 가로세로 쭉쭉 뻗은 용수로와 배수로, 그 수로망을 따라 간석지논벌의 한끝까지 맑은 물이 거침없이 흘러들게 되여있는 이 수로의 연장길이는 무려 수백여리나 된다고 한다.

전기가 들어간 농장의 모든 문화주택들에서는 문화생활의 기쁨 넘치는데 전기동력의 효과적인 리용으로 탈곡과 양수, 사료의 분쇄와 절단 등 여러가지 작업들이 전기화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여러가지 비료의 생산량이 부쩍 늘어나고 과학적시비체계가 세워져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앞당기고 단위당수확고를 확고히 올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도 적극 실현하여 올해에 모든 농사일을 다 기계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12작업반으로 차를 달리였다.

가을바람에 얼굴이 검실검실하게 탄 작업반장이 우리의 말을 듣고 농기계들이 있는곳으로 안내하는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시위하듯이 각종 농기계들이 쭉 늘어서있었다.

뜨락또르, 자동차, 모판만드는기계, 논두렁짓는기계, 알비료만드는기계, 모내는기계, 모뜨는기계, 김매는기계, 농약뿌리는기계, 비료주는기계, 탈곡기…

얼추 훑어보아도 수십여대가 되는데 다 12작업반에 속하는 농기계들이라고 하였다.

한개 작업반에 있는 농기계들만도 이렇게 많은데 농장적으로야 이런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운반수단들이 얼마나 많으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농장적으로는 수백대가 넘는다는것이다.

작업반장은 이 기계들을 가지고 논밭갈이로부터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빠짐없이 기계로 한다면서 손가락을 꼽아가며 설명하는것이였다.

논밭갈이, 논두렁만들기, 써레질, 모판만들기, 모뜨기, 모내기, 모운반, 비료치기, 김매기, 벼수확, 탈곡, 가을갈이…

그의 설명을 듣는 우리의 머리에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신 가르치심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과업은 밭갈이로부터 가을걷이와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농업로동의 생산능률을 빨리 높이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주석의 구상이 현실로 꽃펴 줄지어 늘어선 기계들을 흐뭇이 바라보며 우리는 벼수확이 한창인 포전으로 나갔다.

우리는 여기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농장을 찾아주시였을 때 그이앞에서 벼종합수확기의 작업모습을 보여드린 영광을 지녔던 정영일을 만났다.

그는 주석께서 벼종합수확기를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기계를 운전하는것이였다.

이 벼종합수확기는 벼를 베여 탈곡하면서 기계의 조종에 따라 벼짚을 거름으로 쓸수 있게 썰어 논판에 뿌릴수도 있고 그대로 내보낼수도 있게 만들어 쓰는데서 좋은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비단 벼종합수확기뿐아니라 모든 농기계들이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작물구성 및 경종체계의 특성에 맞게 다방면적으로 쓸모있게 만든것들이였다.

참으로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종합적기계화의 과업이 훌륭히 실현되였음을 우리는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정영일은 기계로 농사지으니 일을 홍겹고 헐하게 하면서도 지난시기에 비하여 농장원 한사람이 다루는 경지면적이 2배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말하였다.

뿐만아니라 농장원들에게 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주어 많은 농장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고있으며 이미 수많은 기사, 준기사들이 이 농장에서 배출되였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주석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안아오는 빛나는 결실인것이다.

정영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농촌에서 종합적기계화까지 완성되면 우리 농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휘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부문 사업에서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는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되는 자기네 협동농장의 모습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우리 나라 농촌의 하나의 축도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곳 농장원들이 알곡증수를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면서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인모선생댁을 찾아서

함박눈이 내리는 날, 우리가 탄 승용차는 설경의 거리를 달려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한 집에 이르렀다.

그곳은 남에서 34년간 원쑤들의 온갖 악형을 이겨내고 40여년만에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온 세계와 겨레의 찬양속에 살고있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선생의 집이였다.

눈내리는 하늘가를 배경으로 우렷이 보이는 집은 그 하얀 벽체와 흰눈이 소담하게 내려쌓인 지붕이며 넓다란 정원, 가지마다에 눈꽃이 핀 나무들이 한데 어울려 정갈하고 청신한 인상을 주면서 아름다운 화폭처럼 안겨왔다.

그것은 그대로 조국앞에 한점의 티도 없이 깨끗한 한생을 바쳐온 리인모선생과 40여년 세월 그를 기다린 김순임녀성을 축복하여 자연이 펼친 순결의 정화이런듯 싶었다.

우리가 현관초인종을 누르니 중년부인이 나타났다. 리인모선생의 딸 리현옥이였다. 여러차례의 취재를 통하여 이미 그와는 구면이였다.

그는 활달한 성미 그대로 우리를 반기며 곧장 리인모선생의 방으로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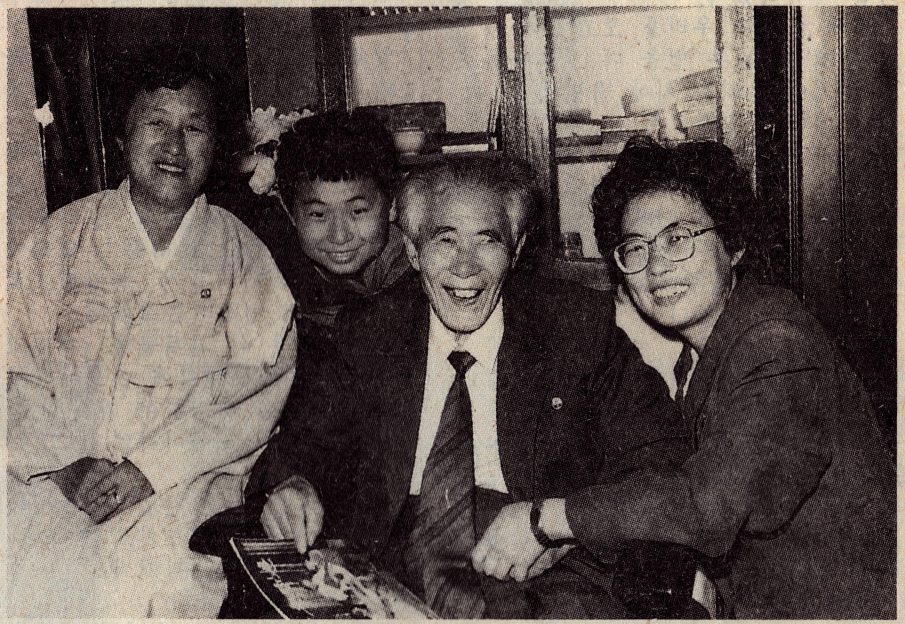
《아버지! 〈금수강산〉잡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텔레비죤을 보고있던 리인모선생이 피끗 머리를 돌리더니 우리가 들어선 문쪽을 바라보았다.

《아, 기자선생들! 반갑습니다.》

대번에 미소띤 얼굴로 기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어조며 눈빛에서 우리는 그의 건강상태가 좋다는것을 느끼게 되여 무엇보다 기뻤다.

곁에 있던 부인 김순임녀성이 어서 앉으라며 의자를 권했다.


리인모선생의 가족들

손님을 맞아들이는 리인모선생내외의 친절한 모습은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여느 가정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례사로운 분위기이지만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이런 날들이 현실로 되기까지에는 참으로 사연도 많은 것이다.

그 갈피갈피를 펼치여보면 이역동포들과 잇닿아있는 사연만도 수없이 많다.

선생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된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해외동포들의 모습이며 글이 실린 《금수강산》잡지를 꺼내놓자 순임녀성이 한장한장 펼치며 선생에게 보였다.

선생은 잡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일제강점시기 이역으로 흩어져간 겨레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신세가 된 우리 겨레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떠나들 갔지요. 그뿐인가요.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기도 했지요. 그때 울며, 가슴을 치며 생리별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갔던 사람들이 오늘은 사회주의조국을 찾아 끊임없이 모여드는것을 보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텔레비죤으로 보고 신문과 화보를 통하여서도 봅니다.

하지만 나는 이역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정도로 아는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내 일생에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모습들로 새겨져있답니다. …》

추억의 문을 열고 멀리 흘러간 세월을 거슬러보던 그는 여기서 말을 끊더니 이슥히 창밖의 먼곳에 눈길을 던졌다.

하늘에서 춤추며 내리는 소담한 눈송이마다 리인모선생이 잊지 못하는 교포들에 대한 추억을 더해주는듯싶었다.

순임녀성이 선생의 흥분된 심정을 헤아려 이야기를 대신해주었다.

《현옥이아버지는 늘 잊을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외우군한답니다.

독일에서 사는 신옥자교포, 미국에서 사는 문명자교포와 박용찬교포…

특히 신옥자교포는 남에 있던 현옥이아버지에게 공화국북반부에 가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제일처음 전화로 알려준 고마운분이지요.》

리인모선생은 그 잊을수 없는 나날이 삼삼히 떠오르는듯 다시 말을 이었다.

《수천수만리 먼곳에 있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동포가 가족의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겨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솟구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쑤들은 전향을 강요하며 나에게 온갖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페인으로 만들었지만 이역의 의로운분들은 나를 돕는 그 헐치 않은 길에 스스로 뛰여들었거든요. 나는 그때 신옥자가 너무나 먼곳에서 전화를 거는것이 미안하여 이젠 더 걸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는 한주일에 한번씩 꼭꼭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

선생은 신옥자교포와 맺어진 이 잊을수 없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남녘의 김상원농민네집에 있을때 미국에서 문필활동을 하는 문명자교포가 찾아와 온갖 성의를 표시하던 이야기와 미국에서 교포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박용찬교포가 북에 사는 가족의 모습과 생활을 록화하여 그 테프를 전해주던 사실도 들려주었다.

《우리 가족과 만난 미주와 구라파지역의 교포들, 재중, 재일동포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현옥이아버지의 귀환을 위해 우리 인민들과 남녘의 고마운분들, 이역의 고마운분들 그리고 온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굽이치던 나날을 정말 잊을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임녀성은 제1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재중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이 가족을 찾아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리인모선생을 축복하며 그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추억은 그대로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있어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헌신분투하면서 일신의 안락보다 먼저 조국과 겨레를 생각하며 불의와는 타협을 모르고 정의를 위해 넋을 불태우는 사람들에 대한 불굴의 인간의 뜨거운 인사이런듯싶었다.

하지만 이 이역동포들이 어찌 리인모선생과 그 가족의 마음속에만 간직되여있는것이랴.

사회주의조국은 민족의 장한 아들과 더불어 이역의 그 이름들,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마냥 깊어지는데 어느새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우리는 취재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이 기회에 새해를 맞으며 우리 잡지를 통해 해외동포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가고 물었다.

리인모선생은 이윽고 사색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무한대한 우주와도 같이 그 끝을 모를 사랑의 품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립던 이역의 동포들과 뜻깊은 상봉의 기쁨도 나누고있습니다.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들을 맞이하는 기쁨이란 이루 비길수 없는데 새해엔 더 많은 동포들과의 상봉을 기대합니다.

나는 새해에 이역의 여러분들이 모두 몸성히 굴함없이 억세게 조국통일의 길에서 힘차게 전진해가길 바랍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하나로 되고 해외의 여러분들도 하나의 조국으로 달려와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겨레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7천만이 얼싸안을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40여년 세월 통일애국의 길에서 심장을 불태우던 리인모선생은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통일의 일념을 안고 절절하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남녘의 동포들과 이역동포들을 생각하며 손에 붓을 틀어잡고 새해에 글을 많이 쓰겠다고 하였다. 그 글속에 잊지 못할 이역의 동포들을 자자구구 새겨가리라는 말도 보태였다.

우리는 새해에 새롭게 꽃펴날 리인모선생과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보며 온 가족의 따뜻한 바래움속에 선생의 집을 나섰다.

본사기자 려순옥

인민의 지도자

혁명가의 유자녀

1967년 8월하순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은 갑자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걸어주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수령님께 보고드렸는데 외국에 보내서 병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체말고 떠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그의 병에 대하여 어버이 수령님께서 아시고 몹시 근심하신다는것, 그 동무의 아버지도 고정한 성미여서 중병을 만나가지고도 숨기고있었기때문에 미처 손을 못썼는데 그 애도 아버지성격을 닮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러다가는 그 애마저 잃겠으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것을 전달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의 처도 미열때문에 고생한다는데 이번에 함께 가서 치료를 받고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떠날 날자까지 찍어주시였다.

그 일군으로 말하면 항일혁명투사의 유자녀로서 그의 아버지는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자기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이름있는 혁명가였다.

일군은 안해와 함께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부부가 떠나자니 아이들이 문제로 되였지만 친척집에 맡기기로 하였다. 다섯살잡이 막내딸을 두고가는것이 그중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부부는 비행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벌써 비행장에 나와계시였다.

비행기를 돌아보시고 승강대를 내리신 그이께서 그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려 할 때였다.

그이께서는 누군가를 찾으시는듯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수영이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일군의 막내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 애는 제 외삼촌댁에 맡기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놀라우신 표정으로 물으시였다.

《그 어린것을 남겨두고 떠난단말입니까?》

그러시더니 안색을 흐리시며 안타까이 말씀하시였다.

《내가 수영이를 안고 려권사진을 찍으라는 말을 안했던가?… 그 생각을 깜빡 잊었거든…》

몹시 안타까우신듯 혼자말처럼 뇌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에게 말씀을 건네이시였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해도 동무들이야 나에게 말해줄수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몰인정해서야 어디에 쓰겠습니까. …안동무는 그렇다치고 철없는것을 두고 떠나는 아주머니의 마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치료도 약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 일군 부부는 그이의 뜨거운 은정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그들부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보살피심에 의해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유능한 의사들의 치료를 받게 되였다.

수만리 먼 이국땅이였으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 장거리전화도 거시여 치료상태를 료해하시고 조국소식도 들려주시군하시였다.

1차치료가 끝났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장거리전화로 그 결과를 알아보시고 경과가 좋으니 한시름 놓인다고 매우 기뻐하시였다.

이렇게 그해도 다 저물어가던 어느날이였다.

문득 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외교관이 찾아왔다.

그 일군은 방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로 병치료상태며 조국을 그리워하는 심정에 대해 다 료해하시고 다음과 같은 은정깊은 말씀을 하셨다고 전달하였다.

《조국이 그리울것입니다. 왜 안그렇겠습니까. 더우기 다섯살짜리 어린애를 떼놓고간 어머니의 마음이야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냥둬두면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겠습니다. 조국에 나와서 아이들과 설도 쇠게 하고 치료도 계속하도록 합시다. 나올 때 특별비행기를 들여보내겠으니 본인들에게 알려주시오.》

1969년 12월초 어느날이였다.

그날따라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이 다시 입원해있는 한 병원으로 문병을 오시였다.

기쁨과 행복에 겨워 그이를 마중하려던 일군은 그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에게 새로 생긴 병적증상이 전염성을 띤것이여서 그이를 몸가까이 모실수 없는 처지였기때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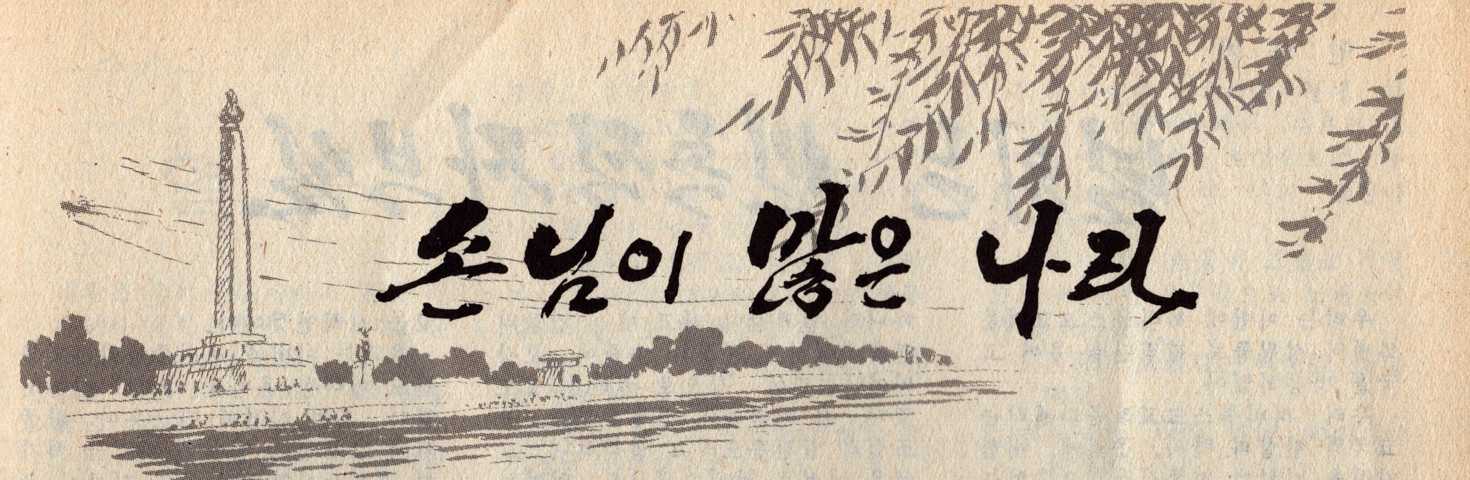
일군은 그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서 돌아가주실것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찾아온 손님을 대접은 못할망정 쫓아버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서있는 일군에게 다가서시여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쓸어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알고있소. 설사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 나를 동지의 아픔보다 제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자기를 위해서 바라는것보다 남을 위해서 바치는것이 더 많아야 하는것이 혁명동지들 호상간의 관계인데 그것이 빈말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오.》



손님이 많은 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원칙과 국제적의무에 충실할것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예로부터 집안이 흥하면 손님이 많아지는법이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것이다.

지난해에도 정초부터 고국에는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귀한 손님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와 흥성거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에는 우리 나라에 많은 외국손님들이 찾아오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81돐을 축하하기 위해 캄보쟈왕국 노로돔 시하누크국왕폐하, 부대통령 겸 민족진보전선 부위원장인 박사 무함마드 주헤르 마샤리까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대표단, 수상 씰베스뜨레 씨알레 빌레까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많은 고위급대표단들이 평양으로 왔다.

국회의장 마루트 분낙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왕국 국회대표단, 국회 상원의장 와썸 싸자드를 단장으로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회대표단도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짐바브웨국가수반인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중앙위원회 제1비서 겸 위원장이시며 짐바브웨공화국대통령이신 로버트 지. 무가베동지, 팔레스티나국가대통령이시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직집행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팔레스티나혁명군 총사령관이신 야쎄르 아라파트동지도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다녀갔다.

타이왕국의 마하 바지라롱꼰왕세자전하는 자기 나라 국회대표단이 왔다간후에 두번째로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경축행사때는 캄보쟈국가수반, 팔레스티나국가대통령을 비롯하여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호금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부대통령 레비 쩨트리크 므와나와싸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잠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 라오스인민혁명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민족회의 의장인 싸만 위냐껫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당 및정부대표단 등 세계 수십개 나라들에서 급이 높은 대표단들을 무어가지고 와서 전승 40돐을 우리 인민과 함께 경축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 여러나라 손님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축하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타이왕국 국회의장 마루트 분낙각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이 많이 발전한것을 보고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의 발전은 세계에서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열렬히 공감하고 따르는 많은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리념을 안고있는 정당들의 당수들과 당대표단들, 정계와 실업계, 사회계와 문화계의 인사들도 그칠사이없이 찾아왔다.

특히 지난해는 민족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정당들과 조직들에서 많은 대표단이 찾아왔다.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을 비롯하여 영국공산당대표단, 희랍공산당대표단,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 벌가리아공산당대표단, 뽈스까공산주의자동맹(프로레타리아트)대표단, 새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운동대표단, 까자흐스딴사회당대표단, 인도공산당(맑스주의)대표단, 뻬루사회혁명당대표단,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 등 세계 모든 대륙에서 수십개의 정당대표단들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진지한 회담들을 진행하고 공동결의문, 공동선언문들을 채택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 정당대표단들은 우리 나라에 와서 수령, 당, 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인민의 모습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목격하고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클라우스 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국제정세는 의연히 복잡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와 맞서서 혁명과 건설을 용감하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인상기

넘치는 민족적 자부심

우리는 이번에 하바롭스크고려문화쎈터 성원들로 관광단을 무어 고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하바롭스크고려문화쎈터는 고국의 현실과 력사,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그런만큼 이번에 관광을 온것도 고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고국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히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나는 고국을 세번째로 방문하지만 이번에도 가는곳마다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큰 감동을 받은것은 고국의 빠른 발전속도였다. 그것을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건설을 통해서도 여실히 느낄수 있었다.

내가 두번째로 고국을 방문한것은 광복거리를 방금 건설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때 3년동안에 수백개 대상의 건설을 완공할 계획이라는 광복거리건설지휘부일군의 말을 듣고 우리는 사뭇 놀랐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건설대상을 3년동안에 능히 건설해낼수 있을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 광복거리는 계획했던 대상을 3년동안에 다 건설했을뿐아니라 새로운 대상들이 더 보충적으로 건설된것을 보고 참으로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한개 도시와 맞먹는 통일거리가 그동안에 또 완공된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에 우리 관광단성원들가운데는 건축기사가 두명 들어있기에 나는 그들에게 거리형성과 건설속도, 건축술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거리형성이며 건축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안목으로 세심히 관찰하고있었다. 그리고는 확실히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창광거리는 거리형성에서만이 아니라 건축술에서도 하나의 손색도 없는 훌륭한 거리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는것이였다. 흔히 거리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완공하게 되면 거치른 구석도 있을수 있는데 광복거리, 창광거리, 통일거리는 조형적으로 잘 조화되였을뿐아니라 립체감이 나고 매 건물의 건축술에서도 최상의 수준이 보장되여있는것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였다. 이 거리들의 건설속도는 곧 조선의 발전속도라고 생각하니 고국은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의연히 빠른 속도로 전진을 계속하고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특히 이번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참관하면서 나는 남다른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내 동생이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했기때문이였다. 고국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에 한몸 바쳐 싸운 영웅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여주기 위해 이런 훌륭한 기념탑을 세워주었다고 생각하니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을 수호하는 전쟁을 진행한 나라들이 많지만 아직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룩한 영웅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이런 훌륭한 기념탑을 세운 나라를 우리는 모르고있다.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는 세웠던 단편적인 조각상마저 없애버렸는가 하면 전쟁로병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장령제복과 훈장마저 팔고있는 기막힌 사실을 생각할 때 고국에서 하는 정치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다. 이것은 후대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자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렬들처럼 영웅적으로 싸우도록 교양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번에 평양산원을 참관하고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산원의 건물이 크고 설비들이 현대적으로 잘 꾸려져있는것도 감동을 주었지만 이 산원에서 해산방조를 받는 녀성들이 입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해산방조와 갓난애기의 양육방조만이 아니라 산후질병치료까지 무료로 해주고있다니 산모와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얼마나 크랴. 이런 인민적인 시책은 사회주의제도만이 실시할수 있으며 우리 고국에서만 볼수 있는 시책인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도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참관하였다. 특히 이번에 단군릉이 발굴되여 고조선이 광대한 지역을 차지한 강대국이였으며 우리 민족이 유구한 력사를 가졌다는것이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확증됨으로써 조선민족은 옛날부터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진 우수한 민족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자랑할수 있게 된것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은 일찌기 고조선때부터 발전된 문자와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일본의 문화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알게 된 우리는 조선민족으로 태여난 긍지를 더한층 느끼게 되였다.

광복거리에 새로 건설된 평양교예극장에서 훌륭한 교예를 관람하면서도 많은것을 느끼였다. 전번에 왔을 때 나는 국제교예축전들에서 높이 평가된 《공중비행》과 요술, 빙상교예, 동물교예를 보면서 그 높은 기교에 감탄했을뿐아니라 극장의 현대적인 시설에 또한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의 교예관람 역시 새로운 감흥을 주면서 나를 황홀경에 잠기게 하였다.

중앙동물원관람에서도 큰 감흥을 받았다. 특히 외국의 국가수반들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께 보낸 선물동물을 인민들이 볼수 있게 동물원에 보내주시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고국에서 인민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되고있는가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서도 우수한 우리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조국통일에 힘껏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주

하바롭스크시

월로쉴로바거리 김형소

—수기—

혈통

피줄은 숨기거나 속이지 못한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로 범상하게 들어온 그 말의 참뜻을 두고 나는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3년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체육위원회에서 사업하는 사촌동생 김동연과 해림현 신합쌍 오성천에서 사는 사촌동생 김동권, 김동수의 초청을 받고 그곳으로 갈 때였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이국의 가을풍경을 바라보느라니 지나간 일들이 생각되였다.

강원도 양양에 고향을 둔 내가 아버지를 따라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간 때가 1942년 8월이였다.

한뉘 펴일 날이 없는 우리의 쪼들린 생활이 혹시 이국에 가면 좀 나아질수도 있지 않을가 하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밟은 이국땅은 너무도 모질고 랭혹했다.

아버지는 배곯고 헐벗는 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겹쳐 더욱 살이 내리고 뼈를 깎게 된다고 하면서 이국땅에서 두해를 살고는 다시 고향으로 나왔다.

그때 고모와 사촌동생들과 헤여지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나라의 해방, 조국해방전쟁 등 사변속에서 서로의 생사를 모르고 지냈다.

그런데 잡지 《금수강산》의 지상을 통하여 고모와 사촌동생들의 거처를 알게 되였으며 친척방문의 길에 오르게 된것이였다.

헤여져 근 50년, 나의 눈앞에는 근 반세기전의 고모며 사촌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모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어글어글한 눈은 늘 시름을 담고있었다.

헤여질 때 30대에 있던 고모는 80고령이 되였고 10대 소년들이였던 동생들은 반백을 넘겼을것이다.

과연 그들의 모습에서 어제날의 흔적을 찾아볼수 있을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한시가 급하게 상봉이 기다려졌다.

피줄은 흔적을 남긴다.

선대는 후대에게 피만 아닌 제 모습도 넘겨준다.

80고령의 고모의 모습에서, 반백을 넘긴 동생들의 모습에서 내가 본것은 할아버지의 모상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넘겨진것이였다.

간 세월의 흐름도 국경도 우리가 서로 닮고 그리워하는 그것만은 지워버릴수도 없앨수도 없었다.

하여 우리의 상봉은 그처럼 뜨겁고 열렬했었다.

혈통은 흔적만 아닌 민족애도 낳는것이 아니겠는가.

첫째사촌동생 동연의 집에서 묵을 때였다.

동생의 친지들은 우리 형제의 상봉을 축하해서 자기 집이나 식당에 초청해가군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식당에 초청을 받은 우리 부부는 온화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들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나이 든 동포가 일어나더니 우리 형제의 상봉을 축하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갔다.

고요를 부시며 은은히 울리는 석쉼하면서도 웅근 노래소리.

나는 노래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놀라움으로 굳어진 눈길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질줄을 몰랐다.

점차 단쇠를 안은듯 가슴이 뜨거워오고 목구멍이 메여왔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
려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려 총을 멘지 삼
년 석달
…

노래는 합창으로 번져갔다.

17살 나이에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화선불비속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이국땅에서 로병동포가 부르는것을 들었을 때 나의 감정이 어떠했겠는가.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격정으로 꽉 메인 목구멍으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
에서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

긍지와 자랑이 담긴 동포로병의 당당한 모습.

머리는 세였고 얼굴에 주름은 갔어도 가렬처절한 불비속을 헤쳐온 용사의 억센 기상이 력연히 담겨있었다.

그후 나는 동포로병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여있는 민족의 감정, 귀중한 동포애를 볼수가 있었다.

한혈통을 가진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지켜싸웠다는 긍지와 자부심.

그것으로 하여 40여년전에 전호속에서 부르던 노래를 지금도 잊지 않고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 아니겠는가.

흔히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앞을 많이 내다보며 늙은이들은 뒤를 많이 돌아본다고 한다.

내 한생에 오점이 없이, 부끄럼없이 민족앞에 떳떳이 살아왔다고 하던 그 로병들을 잊을수가 없다.

나는 이국방문기간 화선에서 함께 싸우던 로병들과 혈육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한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은 그 어데 가나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였다.

황해남도 강령군 읍 71반

리 근 수



<수필>

그가 안고간 고국의 모습

1994년 새해 첫 아침이 밝아왔다. 우리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날 전승 40돐을 민족의 대축제로 경축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한 크나큰 자랑과 긍지속에 보다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기약하며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온것이다.

사람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뜻깊은 설날아침 나도 다정한 사람들과 마주앉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중국 장춘시에서 살고있는 한 동포로부터 신년축하편지를 받았다. 그는 내가 벌써 몇해전 취재과정에 만났던 륙십을 갓 넘긴 동포로서 해마다 가슴뜨거운 편지를 보내오고있었다.

그는 신년축하편지에서 새해에 즈음하여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더더욱 그리워지는것이 고국산천입니다. 웅장화려하며 현대적인 평양의 모습을 담아싣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제일강산일각〉으로 나래펼친 모란봉이며 이끼푸른 부벽루… 창조의 숨결높은 공장들, 어디가나 마음의 닻을 내리고 살고싶었던 사회주의문화농촌마을… 혈육의 살뜰한 정으로 맞아주던 사람들의 모습이 못견디게 사무쳐옵니다. 정녕 고국은 언제나 우리 해외동포들의 심장속에서 억세게 숨쉬고있습니다.》

1930년대말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하여 더는 짓눌려 살수가 없어 10대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하직하고 이국산천에 던져져 황야의 고혼이 될번했던 그였다. 하기에 그에게 있어서 고국은 죽어서도 넋이라도 안기고싶은 품이였다. 그는 그립던 그 품을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찾게 되였었다. 평양에서 열렸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있은 다음해에 그가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던것이다.

그는 조국방문기간 수도 평양시는 물론 사회주의건설로 들끓는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방문일정을 마칠무렵에 그는 자기가 찍은 사진들로 하나의 사진첩을 만들었다.

평양고려호텔의 열려진 창문으로 마가을의 싸늘한 바람이 불어드는 저녁무렵 취재를 시작한 나는 밤이 이슥해서야 호텔을 떠났다. 호텔을 떠나기에 앞서 나는 바로 그 사진첩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사진첩을 내놓으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평양으로 떠나올적에 장춘에 사는 많은 동포들이 고국의 모습을 잘 익혀가지고 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나이들어 운신하기 힘든 늙은이들은 〈생전에 고국산천을 단 한번만이라도 보고 죽으면 한이 없으련만〉하면서 나를 따라나서지 못하는것이 못내 아쉬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잘 찍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묶었습니다.》

사진첩을 번지면 첫 머리에 혁명의 성지 만경대고향집과 백두밀영고향집이 나란히 있었다. 다음으로는 개선문,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5월1일경기장, 평양산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서해갑문… 등 수십장이 수록되여있었다. 그것들은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의 축도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내가 사진첩을 보고있을 때에 그가 한 말은 상기도 뇌리에 생생하다.

《내가 여직껏 심장속에 간직하였던 고국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도 엄청나고 궁지롭고 위대하지요. 나는 이 사진첩을 갖고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재중동포들이 안고있는 고국의 옛모습을 지워버리고 그자리를 강대하고 위력한 조선의 모습으로 메꾸어주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로 모심으로 하여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속에서 참으로 깊은 뜻을 읽을수 있었다.

지금 세계는 동란속에서 뒤흔들리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추호의 흔들림을 모르고 민족자주의 힘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다그쳐나가는 그 《비결》이 바로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였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있음을 페부로 감수한 그의 진정앞에 내 가슴은 몹시 설레였다.

나는 그가 사진첩을 만든것은 조국방문시에 있은 가지가지의 단순한 력사기록이 아니라는것을 직감하였기때문이다. 그것은 비약하는 나라, 7천만의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여있는 위대한 조국의 모습인것이다.

바로 그 존엄높은 조국을 안고갔기에 그는 지금 동포들속에서 통일애국사업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있음을 편지들을 통하여 나는 확신하게 된것이 아닌가.

재중동포가 보내온 1994년 신년축하편지를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재삼 읽고난 나는 즉석에서 회답을 썼다. 회답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담았다.

《…새해를 맞으며 장춘을 비롯하여 중국의 곳곳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심장속에 더 높은곳으로 치달아오르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이 안겨질것입니다. 그것은 몸은 비록 해외에 널려있으나 온 겨레와 함께 발걸음을 하나로 합치고있는 해외동포들의 가슴가슴에 신념의 기둥으로 될것입니다. 그 신념을 안고 우리 겨레가 해내외에서 서로 찾고부르며 뜻과 힘을 합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합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밝히는 길에서 90년대 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합시다.

새해에 다시한번 전투를 바랍니다.》

본사기자 로재룡

고국 방문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재미교포들

본사기자 김휘률



조국의 유적을 화폭에 담고있는 총련조선대학교학생들



고려시기의 건물을 찾은 해외동포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로련조선인어린이들

온포온천



온포천약수터를 리용하고있는 휴양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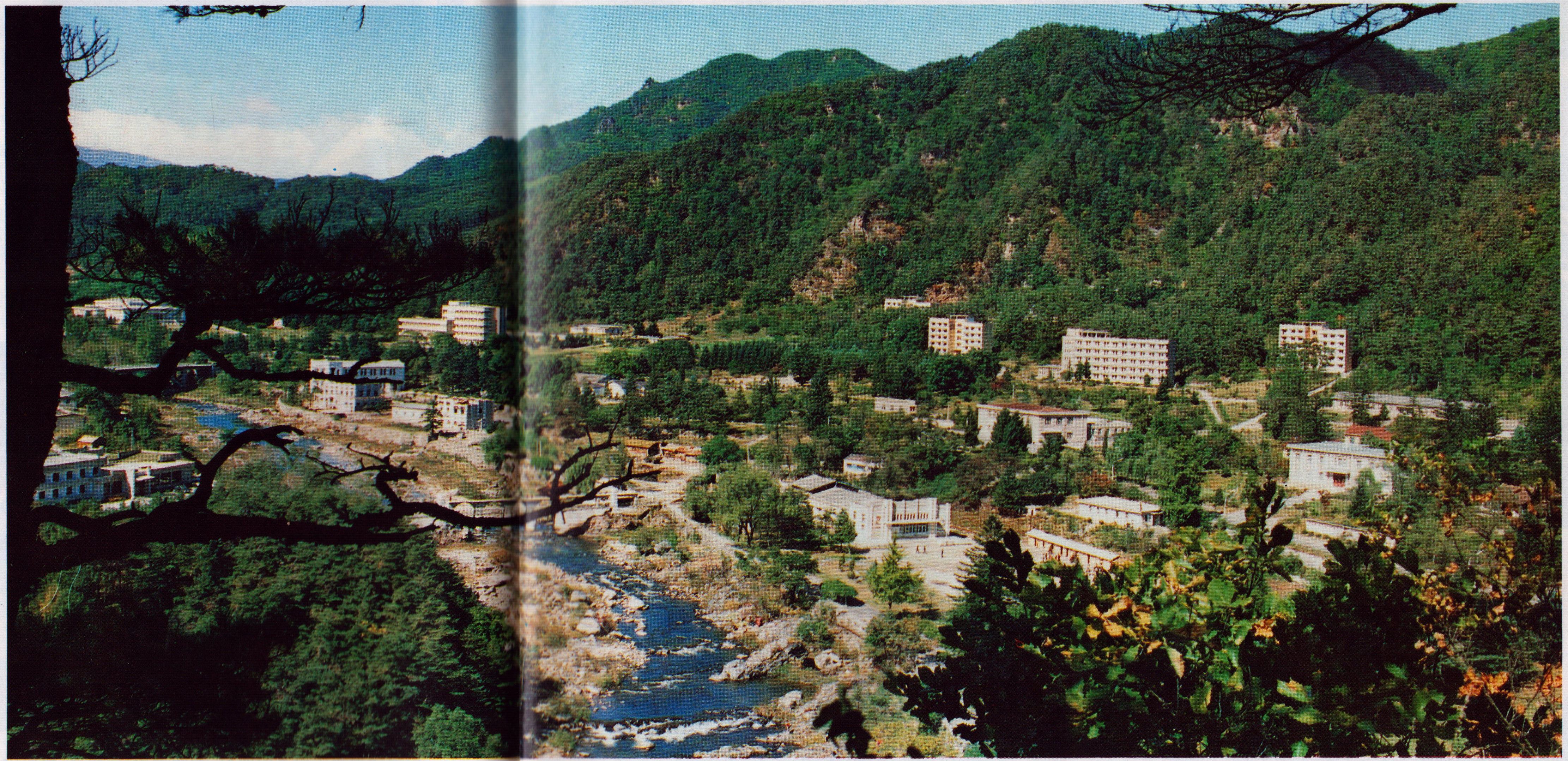
온포천뽀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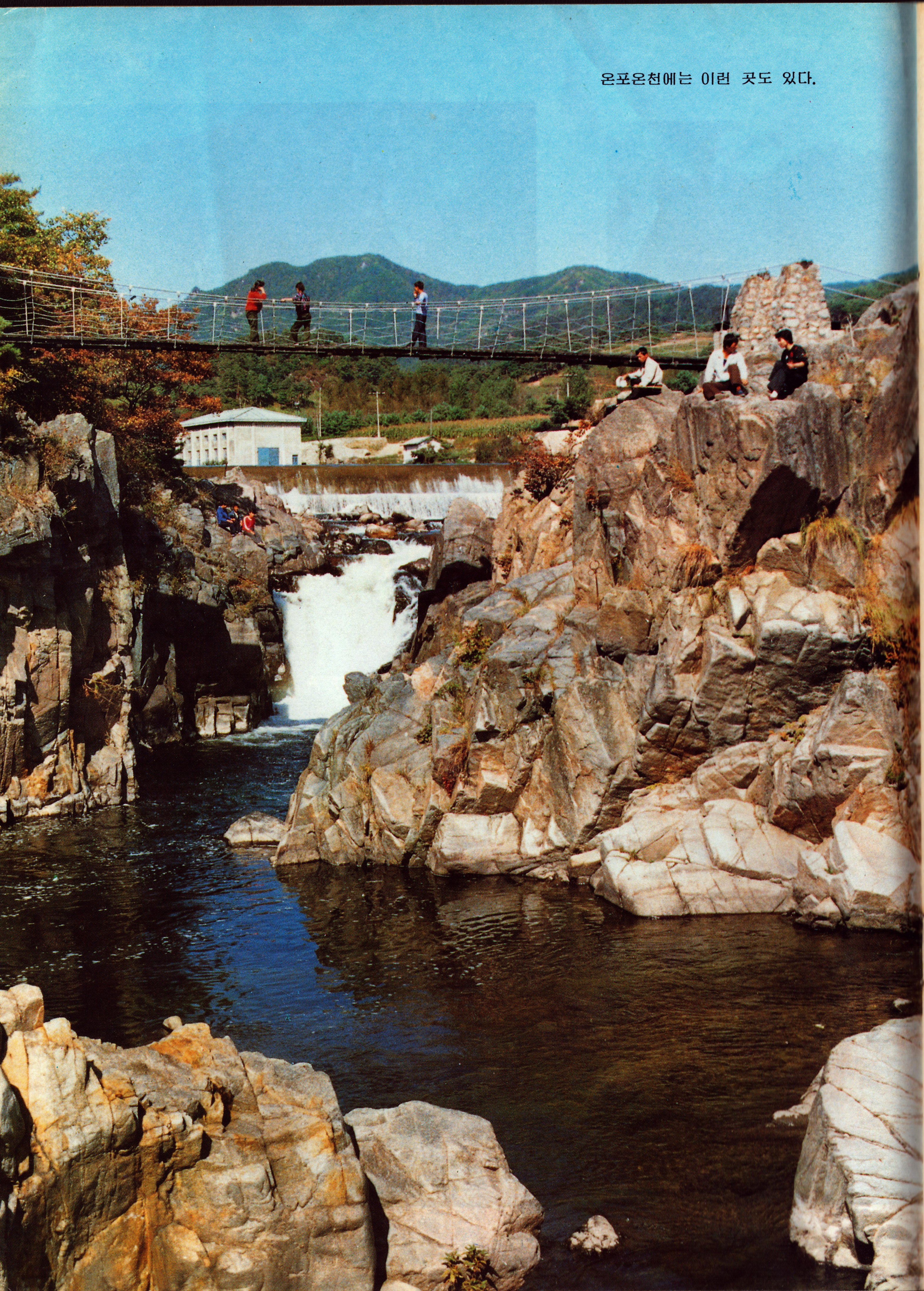
룡담폭포주변의 기묘한 바위들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휴양생들



온포휴양소 전경



온포온천에는 이런 곳도 있다.

온포온천은 함경북도 경성군 상온포리에 있다. 경성역에서 경성천을 따라 북서쪽으로 약 2키로메터 가면 경성모래온천에 이르며 그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10여키로메터 가면 온포온천에 이른다.

온포지대에는 경치 아름다운곳이 많다. 주위에는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높은 관모봉(2,540메터)이 머리에 흰눈을 이고 하늘높이 솟아있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여나고 가을이면 단풍으로 아름다운 청계봉이 있다. 흰모래밭에 해당화 붉게 피는 룡현해수욕장이 있는가 하면 경성벌이 펼쳐져있다. 온포천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경치는 어느 계절이건 다 좋다. 휴양소가 자리잡은 지대에는 허공중에서 휘여내리는 물줄기의 모양을 형상하여 룡담이라 불러오는 룡담폭포도 있고 수십길의 절벽을 세번 꺾어서 떨어지는 3대직폭포도 있다. 온포천을 건너간 허궁다리, 배놀이장, 낚시터의 경치도 좋지만 오성암, 선바위의 풍치는 더없이 아름답다. 이런 경치좋은곳에 온천이 있으니 명승지로서의 이름이 더욱 높은것이다.

온포온천은 500여년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온천의 온도는 57도씨인데 계절적차이뿐아니라 년도에 따르는 변화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수소탄산이온, 나트리움이온, 칼리움이온, 류산이온과 그밖에 라돈 등이 들어있다. 그래서 온포온천은 광물질희박규토-불소-라돈샘으로서 말초신경염, 운동 및 감각 장애, 비결핵성관절염, 다발성관절염, 부인병, 고혈압병, 습진 등 병치료에 특효가 있다. 이 온천은 투명하고 냄새가 없어 일반샘물과 별로 차이가 없는듯한데 목욕하기도 좋고 마시기도 좋다. 이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되고 위병과 같은 속탈이 떨어진다.

온포온천은 과거 외국인들과 돈많은자들의 유흥지대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가난한 조선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에서는 외국호색광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였고 기생들, 매춘부들의 웃음소리만이 들리게 되였다.

명승지인 온포온천에 인민을 위한 휴양소가 건설되기 시작한것은 해방후부터였다. 1947년 5월부터는 로동자, 농민을 위한 첫 휴양이 조직되였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4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그리고 12월부터 다음해 2월중순까지는 농업근로자들이 휴양생활을 즐기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여러차례나 이곳 온천지대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여기는 경치가 참 좋은곳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고 얼마나 좋은곳인가고 하시며 휴양지로 더 잘 꾸리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어느날에는 높은 산발에 몸소 오르시여 저멀리 바다가 룡현까지 휴양소구역을 넓히고 수십리 포장길도 내며 솔밭속에 새 탑식휴양각과 국제경기도 할수 있게 체육관도 크게 짓고 수영장과 배놀이장도 만들도록 가르치시였다. 또 어느날에는 휴양생들중에 경환자가 있을수 있으니 그들을 위한 정양소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이곳 휴양소에 대한 그이의 관심은 참으로 각별하시였다. 주석께서는 휴양생들이 서로 빨리 친숙해져서 휴양기간을 즐겁게 보내게 하자면 입소식 다음날에 유희오락체육경기를 조직하는것이 좋겠다는 등 휴양생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 사랑으로 관심하여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주석의 이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6월에 현지지도사적비를 이곳에 세웠다.

이곳 휴양소에는 매해 만수천명의 휴양생들이 찾아오고있다. 이곳에는 해외동포들은 물론 외국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고있다.

온포온천지대에는 천연기념물로서 온포온천 이외에도 경성온천과 온포선바위가 있다.

경성온천은 모래온천으로 유명한 하온포리에 있는데 이곳에는 김정숙료양소가 자리잡고있다. 이 료양소는 1947년 5월 사회보험경성휴양소로 발족되여 경성정양소, 경성영예전상자병원, 경성료양소로 개편확장되여왔다. 이 료양소의 부지는 70여정보, 총건평은 2만여평방메터이다. 여기에는 방대한 치료시설, 최신의료수단과 유능한 의료일군들이 있다.

온포선바위는 화강암이 깎아지른듯하게 곧추 서있는 바위인데 마치 사람이 6개의 큰 벽돌을 쌓은듯한 느낌을 안겨준다. 이고장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오래전부터 《선바위》라고 불러왔다.

이곳에는 온천발굴과 관련된 전설도 있다.

온포온천지대는 명승지로서뿐만아니라 유명한 휴양지, 료양지로서 전망도 좋다.

본사기자 로명준

조선속담

•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
모든 일에는 다 알맞춤한 때가 있으므로 그 시기에 맞추어 실행해야 함을 비겨이르는 말.

• 봄도 한철 꽃도 한철
사람에게 있어서 청춘시절은 한때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 비오는 날 낚시질하기
때를 잘 선택하지 못하고 타산없이 일을 벌려놓는 경우를 가리켜 하는 말.

•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무엇이든지 꾸어주거나 빌려주기는 쉬워도 그것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뜻.

• 배안의 아이 아들 아니면 딸이다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는것을 가지고 공연히 갑론을박하는 경우를 가리켜 비웃어 하는 말.

•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간다
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외나무다리를 용케 건너가듯이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
② 아슬아슬한 모험을 동반하면서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근본특징

최근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고 그를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때문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진수를 이루는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신데 기초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은 모두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를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태도, 혁명의 근본원리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을 밝혀주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여기에는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발전풍부화되고 새롭게 제시된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이것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그 내용으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리론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특징의 하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사상리론체계라는데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는것을 말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다. 지난시기 유물변증법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물질의 일차성을 론증한데 기초하여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운동법칙을 밝혔다. 유물사관은 물질세계의 일반적운동법칙을 사회력사에 적용한것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기초에는 바로 유물변증법의 원리와 그것을 사회력사에 적용한 유물사관의 원리 즉 객관세계를 위주로 하는 철학적세계관이 놓여있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은 이와는 달리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론증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혔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은 바로 이러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사상리론체계로 될수 있었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혁명을 사회경제구성체의 변혁으로 보면서 혁명의 원인을 물질적생산방식에서 찾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혁명의 법칙을 밝혔다. 그리하여 혁명의 근본원인은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의 모순과 충돌에 있고 이 충돌은 계급적대립과 계급투쟁으로 표현되며 그것은 일정한 단계에서 폭력혁명으로 넘어간다고 보았다.

이것은 혁명승리의 주되는 조건을 객관적요인에서 찾은것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천명하였으며 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히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원인은 그 물질기술적요인에서 찾기전에 사람에게서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고 혁명의 목적은 결국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있으며 혁명의 승리는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적인 력량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론증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또한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을 계급적, 민족적 예속에서뿐아니라 낡은 사회의 유물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온갖 사회정치적 및 물질적 조건과 사회문화적조건까지 마련하게 하는 옳바른 지침을 준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은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령도방법을 새롭게 체계화하고있다.

지난시기의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령도방법문제를 혁명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제기하지 못하였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사회적 진보와 변혁을 이룩해나간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여기에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이 있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완성된 구성체계를 가지고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그 사상리론적내용에 상응한 일정한 구성체계를 가진다. 혁명사상의 구성체계에 의하여 그의 과학성과 혁명성, 내적정연성이 좌우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맑스주의는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로 이루어져있다. 맑스주의가 이러한 사상리론체계로 구성되게 된것은 그 사상리론적원천, 그의 력사적사명과 관련되여있다.

맑스주의는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사회주의학설을 원천으로 하고있다.

맑스주의의 력사적사명은 로동계급을 혁명에 준비시키고 로동운동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였다. 이로부터 맑스주의는 반동적인 자본의 지배를 신성화하고 그 영원성을 설교하는데 복무하여온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타파하고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밝혀야 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맑스주의는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과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의 3대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레닌주의도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발전시켰으나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의 3대구성을 그대로 따랐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자기의 고유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된것은 이 사상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력사적사명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고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새로운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요구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에로 조직동원하는 령도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고유한 구성체계로 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기행시집 《기쁨과 슬픔》을 일본에서 발행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 나가노현민회의 성원인 일본작가 다루다 노부오가 세계기행시집 《기쁨과 슬픔》을 세상에 내놓았다.

시집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19편의 시가 편집되여있다.

시집의 앞부분에는 필자의 자필로 된 《10대강령 열렬히 지지》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그리고 《친선의 다리》, 《봄은 돌아와》 등 4편의 시가 부록으로 삽입되여있다.

필자는 조선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적이 빛나고있다고 썼다.

그는 조선의 산천경개가 아름다움을 볼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썼다.

그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온갖 원쑤들의 침략과 모략 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한피줄을 이은 겨레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민족최대의 력사적과업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통일의 대강령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기행시집 《기쁨과 슬픔》에 편집된 일부 시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만경대의 봄

따뜻한 봄날
록음우거진 봉우리로
사람들 끝없이 찾아오는
만경대
초가집뜨락에 들어서면
어려운 생활과 투쟁의 흔적
력력하고
《지원》의 사상 가슴불태워
그리움에 달려온 이 몸 뜨겁네

만민의 환희 넘치는곳
꽃피는 동산을 찾는
꽃봉오리들의 끝없는 물결 보니
조선의 휘황한 래일이 안겨오네

손에 손을 잡자

손잡고 화목 도모해야
북남이 하나 되고
뜨거운 정 가슴울리며
평화의 종소리 높으리

분계선 밀어던지고
서로 오가야
새 조국 세우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전민족을 애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통일 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여섯번째 조항에서 민족대단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인민들의 정치활동의 조건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밝히시였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화합과 단결을 이룩하는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성원들에게 통일운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통일애국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운동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 현실은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들이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조건을 보장해주자면 우선 통일 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을 바라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으며 통일조국에서 행복을 누릴 사람들도 전체 조선민족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당해온 우리 민족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방도를 론의하고 통일운동을 벌리는것은 마땅한 권리로, 의무로 된다. 누구도 우리 나라의 통일을 대신해줄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체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만, 전민족이 떨쳐나설 때에만 성취될수 있다.

그런데 통일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민족성원들에게 통일론의와 통일운동의 자유를 주지 않고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탄압하고 박해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벌리는 통일론의와 그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이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며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용납못할 행동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성원들에게 통일 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들에게 통일운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자면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이 련합하여 범민족통일국가를 세우자고 하는 조건에서 친북, 친남을 시비하는것은 통일하려는 자세라고 볼수 없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거쳐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을 귀중히 여기며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오직 단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련공련북통일지향과 조국통일운동이 범죄시되고있다.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반공파쑈악법으로서 거기에는 동족이 사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북의 인민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되여있으며 그것을 핵으로 하여 법체제가 꾸며져있다. 이 《법》에 의하면 통일대화, 래왕, 접촉 등 공화국북반부와 련관된 모든 움직임들이 《위법행위》로 된다. 이 악법을 휘두르며 력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와 주장을 같이하고 손잡고나가려는 사람은 물론 북의 동포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론의한 사람까지도 《리적행위》로 몰아 탄압하여왔다. 통일의 념원을 안고 북을 방문하였다 하여 옥고를 치른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 등 통일애국인사들의 경우가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괴뢰도당들처럼 동족을 적대시하며 친북, 련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조국통일은 어느때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북남대결의식을 버리고 통일애국하려는 사람들의 통일론의와 통일운동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제시하신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갈데 대한 방침은 전민족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일떠세워 민족주체의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성업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기치이다.

위대한 주석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받아안은 온 겨레는 지금 크나큰 감격과 격정에 휩싸여있으며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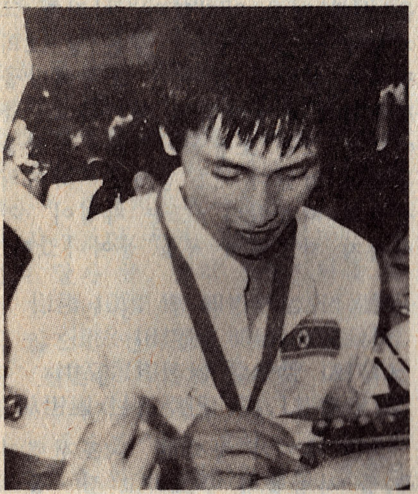
토막소식

△ 제11차 아세아컵탁구경기대회에서

중국의 광동성 순력에서 진행된 제11차 아세아컵탁구경기대회 남자단식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리근상선수가 단연 제1위를 쟁취하였다.

제11차 아세아컵탁구경기대회는 아세아의 12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30여명의 이름있는 선수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룬 탁구강자경기였다.

남, 녀 단식경기만 진행된 이 경기대회에서는 남,녀선수들이 각각 4개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조에서 1, 2위를 한 선수들이 제2단계경기에 참가하여 승자전의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였다.



남자 단식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리근상선수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선수들을 물리치고 중국선수와 결승경기를 진행하였다.

리근상선수는 결승경기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강한 타격과 다양한 치기수법으로 련속 점수를 올려 중국선수를 3대1로 이겼다. 그리하여 아세아의 탁구강자로 이름을 떨치였다.

△ 남강발전소 1호발전기에서 전기생산 시작

남강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제1수력발전소건설련합기업소와 제4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발전소의 첫호기발전설비조립이 끝나고 부하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하여 전기절을 계기로 1호발전기에서 전기생산을 시작하였다.

△ 귀중한 문화유물 새로 발굴

최근 개성지방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높은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수십점의 귀중한 문화유물들이 발굴되였다.

새로 발굴된 유물들은 원시시대(신석기시대)의 돌도끼, 돌활촉을 비롯하여 고려시기의 금속공예품들과 옥공예품, 고려자기들과 리조자기, 개성왕씨족보 등이다.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에 있는 고려 태조왕인 《왕건왕릉》에서는 금동피리와 청동주전자, 국화무늬박이푸른사기잔들이 발굴되고 판문군 전재리에서는 상당한 크기의 청동거울이 발굴되였다.

개성부근에서 새로 발굴수집된 력사유물들은 고려박물관에 전시되여있다. 이 유물들은 고려시기 문화발전의 높은 수준과 우리 민족의 창조적재능을 보여주고있다.

△ 고구려 도자기가마터 새로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집단은 최근 황해남도 봉천군 봉암리에서 도자기가마터 4개를 발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이 가마터들은 고구려의 도기와 청자기를 구워내던 가마터이다.

가마터들의 천정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무너져내려 평토화되여있었다.

그러나 가마터의 바닥과 벽체구획 등은 명백히 남아있다. 가마터들의 길이는 5.4~6.2메터 정도였고 너비는 2.2~2.6메터사이였으며 소성실바닥의 경사도는 10~22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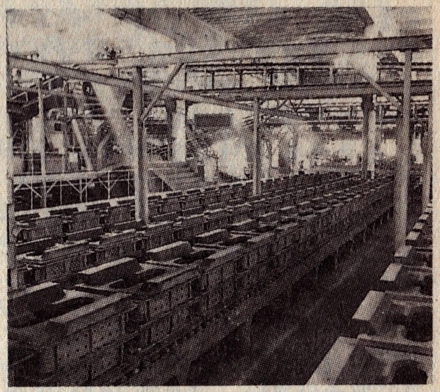
가마터들에서는 도기, 자기 등 도자기류들과 자기를 소성할 때 쓰던 가마기구류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가마터와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연구분석한 결과 그것들은 고구려시기의것으로 확증되였다.

△ 금성뜨락또르련합기업소에서 주물생산공정을 현대화하였다.

금성뜨락또르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주물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내밀어 또 한계통의 주물자동조형선을 완성하여 조업할수 있게 하였다.

이곳 로동자들은 80여메터의 롤강선, 170여메터의 혼사장구조물을 비롯한 많은 용접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자동조형선의 총조립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새로 완성된 자동조형선은 40여종에 수십대의 여러가지 설비들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주물설비로서 총길이는 40여메터, 폭이 6메터 이상에 달하고있다.

이 자동조형선은 종전의 방법에 비하여 일이 더 헐하고 생산성을 거의 7배로 끌어올릴수 있는 현대적인 주물설비이므로 주물혁명에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 세계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에서

세계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에서 우리 나라 발명가들에게 금메달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수여식에서는 먼저 새로운 과학성과를 이룩한 우리 나라 발명가들에게 금메달과 상장을 수여할데 대한 세계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의 결정이 전달되였다.

이어 세계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 총국장의 위임에 의하여 쥐. 파르크 아키크자드대표가 철도부11월19일연구소 소장 고진남과 농업과학원 개성인삼연구소 실장 림광야(녀성발명가)에게 금메달과 상장을 각각 수여하였다.

작곡가 김원균

작곡가 김원균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애국가》를 비롯하여 70여편의 노래와 가극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현대음악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있는 음악가이다.

《**김일성**훈장》수훈자이고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 인민예술가인 그는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고있다.

× ×

해방의 감격으로 끓어번지는 가슴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고있던 해방직후 어느날이였다. 음악가동맹의 한 일군이 김원균을 찾아왔다. 그 일군은 원균에게 영예로운 과업을 맡기려고 한다면서 깨끗한 종이에 정히 쓴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를 내놓으며 그것을 작곡하라고 권고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원균은 그 가사를 선뜻 받아들지 못하였다. 그 위임이 너무도 아름찬것으로 여겨졌기때문이였다. 작곡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기량도 부족한 내가 그런 위대한분을 칭송할 불멸의 송가를 창작해낼수 있을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 온 민족이 망국노의 멍에를 메고 절망에 울고있을 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20성상 기나긴 세월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며 일제와 싸워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 일제 100만 대군을 전률케 하고 싸움마다에서 수많은 전설을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이 노래는 온 민족의 흠모의 정을 완벽하게 담아야 할 노래인데 내가 그걸 해낼수 있겠는지…》

《동무 〈조선행진곡〉이란 좋은 노래도 창작하지 않았소. 그 노래를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여 부르고 있소.》

《그렇지만 이 노래는 내가 쓴 그런 노래하고는 견줄수도 없습니다.》

《원균동무, 노래는 꼭 재능으로만 창작하는것도 아니요. 혁명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정이 넘치면 좋은 노래를 창작할수 있소.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를 쓴 시인도 가사를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만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풍모에 깊이 감동되여 이런 훌륭한 가사를 썼소.》

그처럼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령도자를 칭송한다는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비록 능력은 모자라지만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해 **김일성**장군님을 칭송하고싶은 충동이 그로 하여금 노래를 작곡할 대담한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그는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할수 있는 선률을 찾아내기 위해 몇밤을 지새우며 모대기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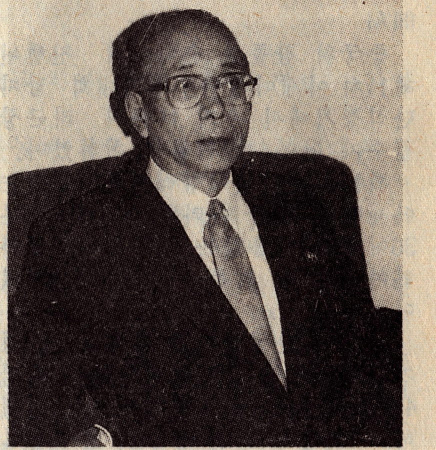
가사의 구절구절을 음미하노라니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고난에 찬 로정이 화폭으로 선히 떠올랐다.

얼마나 고난에 찬 20성상인가. 사나운 눈보라, 견디기 어려운 굶주림, 끝없는 격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오로지 빼앗긴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 혈전의 길을 걷고걷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적영웅,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조국에 진군하시여 해방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였으며 절망에 울던 우리 인민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그 업적을 무엇에 비길수 있으랴! 불멸의 업적, 위대한 풍모를 형상하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선률이 무색하게만 생각되였다. 그는 새로운 선률을 찾아 낮과 밤을 이어갔다.

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가사의 이 구절을 음미하노라니 자기의 쓰라린 지난날이 가슴을 어이며 되살아왔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음악학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에게 졸라 받은 돈 50전으로 하모니카를 샀을 때 그는 그것을 얼마나 큰 기쁨으로 여겼던가. 그러다가 일을



시작하여 악기상점의 간판을 그려준 값으로 받은 기타가 한생에 처음 손에 넣은 악기였다. 이러한 그이기에 8. 15해방을 맞은 날 그의 감격은 남달리 컸다. 조국해방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그는 소용돌이치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그 감격은 하나의 선률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가사까지 지으면서 곡을 붙여나갔다.

꽃동산 삼천리에 새 동이 튼다
새로운 아침에 광명이 왔다
나가자 앞으로 삼천만동포여
앞으로 나가자 민주조선 만만세

그는 자기가 창작한 《조선행진곡》을 사람들이 부르라고 집 울타리에 크게 써붙이였다. 그리고 바이올린과 손풍금을 탈줄 아는 동무들을 데려다 기악3중주로 연주할 련습을 하기도 했다. 마을에 리인민위원회가 수립되는 날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배워주면서 감격에 겨워하였다.

이러한 그였으니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이 얼마나 큰 감격을 주었으랴. 그는 장군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질서를 유지할 임무를 받았으나 그자신이 **김일성**장군님을 더 가까이에서 뵈옵고싶어 자꾸만 그이가까이로 다가가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 그분은 해방의 은인, 조선의 태양이시다! 그는 이런 불같은 흠모의 정을 노래에 담기 위해 애썼다. 다듬고 또 다듬어 노래를 완성했을 때에는 동녘하늘이 휘뿌옇히 밝아오고있었다.

며칠후 음악시청회가 있다고 하여 그는 당중앙위원회청사로 갔다. 거기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수많이 모여있었다.

이윽고 무대에 이름있는 가수와 관현악반주를 할 연주가들이 등장하더니 김원균이 작곡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청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노래에 대한 열렬한 찬양의 뜻을 표시하였다.

《우리 인민의 크나큰 소원이 풀렸소!》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훌륭히 형상했소!》

사람들은 저저마다 원균을 축하하였다. 그의 심장은 영광과 행복으로 세차게 들먹이였다.

그는 《애국가》창작에서도 이렇게 심혈을 쏟아부었다. 《애국가》를 창작할 과업을 받았을 때 그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참다운 조국이 없어 우리 민족은 얼마나 오랜 세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목마르게 갈망했던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세계지도에서조차 그 이름이 사라졌던 우리 조국이였다. 자기의 말과 글,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남부녀대하여 이국땅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이였다. 원균은 자기가 일제때 조선노래 《도라지》를 불렀다고 경찰에 끌려가 문초를 받던 일이 가슴아픈 추억으로 되살아왔다. 이제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에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게 되면 그런 비극은 영원히 옛말로 될것이다.

그는 《애국가》에 열렬한 애국적인 감정을 잘 형상하기 위해 새 민주조선으로 급속히 변모되여가는 조국에 대한 생생한 인상을 얻으려고 조국의 방방곡곡을 력방하기도 하고 아침해 빛나는 조국을 찬양하는 곡상을 찾기 위해 새벽에 모란봉에 올라가 해돋이시각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공화국창건을 선포하는 력사적인 날 대회장에는 그가 작곡한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퍼졌다.

그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애국가》외에도 좋은 노래를 많이 작곡하였다. 노래 《민청행진곡》(지금은 《청년행진곡》으로 개칭됨.), 《빛나라 청봉숙영지》,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 《금강산의 목란꽃》, 《원쑤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라》 가극 《남강마을녀성들》의 주제가 등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지리산》이라는 가극도 창작하였다.

그의 노래에서는 혁명의 매 단계의 시대적감정을 강하게 느낄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조선행진곡》이나 《민청행진곡》에서는 평화적건설시기 우리 인민의 기상을 잘 느낄수 있으며 전쟁시기에 쓴 《우리의 최고사령관》, 《강철의 대오는 전진한다》에서는 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감득할수 있다.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도 전후 천리마 타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씩씩한 기상을 잘 느낄수 있게 하는 노래이다.

또한 그의 노래는 씩씩하고 기백이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가 작곡한 노래가 대부분 행진곡이라는것이 그의 창작적개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대중이 부르기가 헐하다.

그의 가정은 작곡가일가이다. 맏아들과 넷째아들도 작곡가인데 이제 멀지 않아 평양음악무용대학 작곡학부에서 공부하는 손자까지 대학을 졸업하면 3대를 작곡가로 이어가는 가정으로 될것이다. 그의 맏아들은 벌써 수많은 명곡들을 창작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공훈예술가이다. 원균의 집안에 작곡가가 많은것은 그의 요구에 의해 된것이 아니다. 셋째아들이 조각을 지망했을 때 맏아들이 그에게 작곡을 지망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때 원균은 그것을 만류하였다.

《놔두어라. 예술은 열정의 결정체인데 자기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것을 억지로 시켜서는 성공하지 못해.》

원균은 올해 77살이지만 마음은 아직 청춘기에 살고있다. 《예술가는 정열에 의해서만 산다.》 이것은 그의 좌우명의 하나이다. 그래 그는 언제나 청년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롱담도 곧잘 하면서 잘 휩쓸린다. 그의 정열은 청년들을 무색케 한다. 그는 인민예술가이지만 자기 노래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는것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자기가 지은 노래를 맏아들에게도 보이며 의견을 묻군한다.

1986년 김원균은 생일 70돐을 맞으며 작곡가들가운데서 맨 선참으로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93년 2월 그를 비롯한 오랜 예술가들을 접견하시고 우리 나라 예술발전에 공로가 있는 동무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승용차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원균에게 **김일성**주석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를 비롯한 피아노 등 은정어린 선물들을 보내주시고 여러차례나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는 지금도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피바다》가극단 총장으로 사업하면서 식을줄 모르는 정열로 창작지도사업에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본사기자 리운봉

아시는지요?

△ 김치를 오래 보관하려면

김치를 오래 보관하려면 김치가 시여지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김치가 다 익은 다음 더 발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장온도를 낮추는것이다. 다 익은 김치는 0~2℃정도 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보장하자면 김치독을 땅에 묻는것이 좋다.

다른 방법의 하나는 김치를 담글 때 당분과 젓갈(생명태, 새우젓, 멸치젓)을 지나치게 많이 넣지 않는것이다. 생명태는 김치감총량의 2%, 새우젓은 1%, 멸치젓은 1.5% 정도 넣는것이 좋다.

김치가 시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개껍질, 천연칼시움화합물 등을 천에 싸서 김치독에 넣기도 한다.

△ 약수를 마실 때 주의할 몇가지

첫째, 열이 나면서 앓을 때, 만성으로 앓던 병이 도졌을 때, 위수술후 다른 병이 겹쳤을 때, 임신했을 때, 결핵, 암 등의 병이 있을 때,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에는 약수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둘째, 약수는 쇠로 만든 그릇에 담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셋째, 약수는 처음에 적게 마시다가 점차적으로 량을 늘이면서 몸에 맞게 조절하여야 한다.

3대혁명전시관(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연건축면적이 1만 5천여평방메터에 달하는 경공업관에는 1만여종에 16만 4,200여점의 전시품들이 있다. 이 방대한 량의 전시품들은 우리 나라의 경공업이 방직, 피복, 식료가공, 신발, 일용품 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을 다 갖춘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한데 대해서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특색있게 꾸려진 경공업관은 갖가지 인민소비품들로 하여 황홀경을 이루고있다.

1층에는 방직, 피복, 식료가공, 일용품, 신발 공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제품들과 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중앙홀의 정면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옷감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려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방직공장을 찾으신 사진이 모셔져있다.

그리고 그 량쪽에 우리 나라의 섬유원료에 의거한 방직공업의 급속한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천들이 전시되여있다.

전시장에는 주체섬유인 비날론으로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생산하고있는 고급양복천을 비롯한 옷감들과 피복제품들이 그쯘하게 전시되여 이땅에 자체의 원료와 설비, 기술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이 창설되고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자랑과 긍지를 안겨주고있다. 우리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생산해왔고 녀성들의 옷차림을 화려하게 해주며 국제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있는 약산단, 구룡단, 양단 등의 고급비단천들. 이 아름다운 천들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비단생산기지인 녕변, 박천 견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하는것들이다. 물색고운 날염천, 샤쯔천, 격자천 등 면직물들을 비롯하여 보는 천들마다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는 국내산제품들이다.

피복공업부문 성과전시장에는 성별과 나이, 계절에 맞게,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여러가지 색갈과 문양, 형태로 만든 양복들과 조선옷 본보기들, 각종 편직제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각별히 끄는것은 자동인체측정 및 옷설계실이다. 인체측정의 과학화와 신속화를 실현하고 측정으로부터 옷설계까지의 자동체계를 수립한 이 기계는 임의로 선택한 사람들의 몸에 꼭 맞는 옷설계를 해내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피복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는 주체적이며 믿음직한 섬유공업과 방직공업에 발맞추어 과학화, 현대화에로 나아가는 피복가공공업의 앞날을 보여주고있다.

식료공업성과전시장에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과 수백가지의 식료품들을 전시했는데 풍성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국제시장에서 7개의 금메달을 받은 인삼술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있지만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간장, 된장 생산의 공업화는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는 것이다.

일용품공업부문 성과전시장에는 녀성들을 기쁘게 해주는 부엌세간을 비롯한 가정용품들과 화장품, 학용품과 문화용품들, 가구, 도자기, 악기, 문화체육기재들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쓸모있는 제품들이 꽉 차있다.

랭동기, 전기밥가마, 수지그릇, 법랑그릇, 재봉기, 옷장, 이불장…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고있으며 우리의 백화점들과 상점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국내산제품들이다.

경공업관에는 군을 거점으로 하는 지방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경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보여주고있는 지방공업부문 성과전시장이 꾸려져있다.

돌이켜보면 경공업발전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국토의 84프로를 차지하는 산을 잘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창성군에서 창조한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거기에서 얻은 원료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게 되였다.

전시장에는 지방공업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장성도표, 창성군 지방공업원료기지모형사판, 현대적으로 꾸린 삭주식료공장 장생산공정, 지방공업의 원료기지조성에서 이룩된 성과를 담은 록화물 등이 전시되여있다.

경공업생산액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1992년에 54프로, 이것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 경공업관의 2층에는 화학공업과 도시경영 및 환경보호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장성도표와 전시품들을 비롯하여 현대적살림집구조모형사판들, 우리 나라의 의약품 및 의료설비들의 발전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여러가지 약들과 최신의료설비들이 전시되여있다.

경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켜나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현명한 령도와 조선로동당의 경공업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금숙



조선비단전시품



경공업관 외부



뜨개제품과 편직제품들



수지일용제품들



법랑제품들



경공업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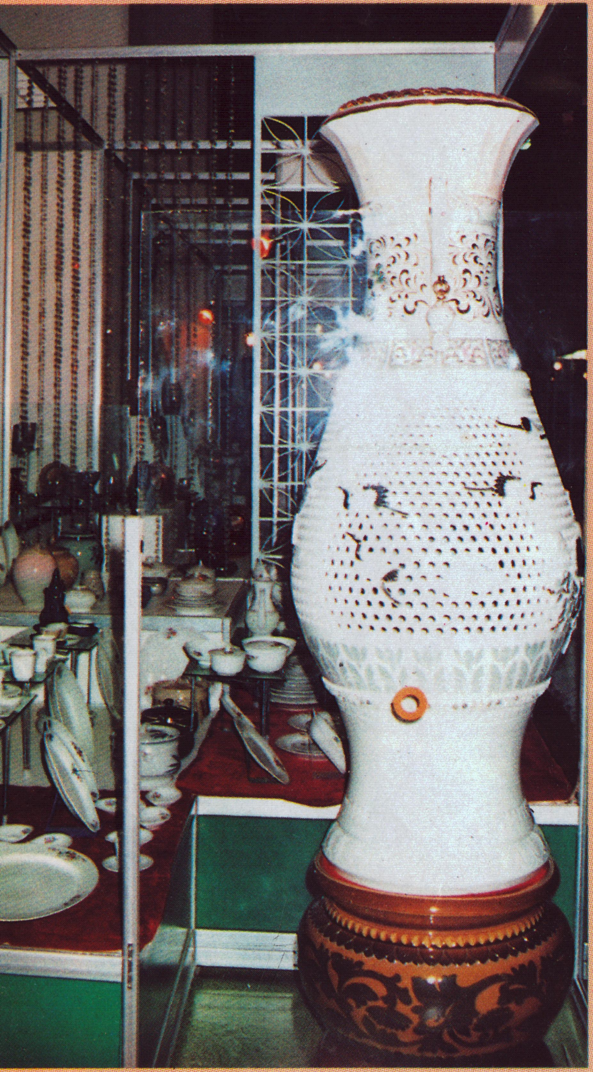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특산식료품들



천 제 품 들



여러가지 신발류



여러가지 도자기류



화 장 품 전시장

본사기자



〈고향소식〉

장연군의 새모습

우리 나라의 서부 바다가에 위치한 황해남도 장연군은 미국의 우드만 7924번지에 살고있는 리경욱의 고향이다. 이곳 읍지구에는 그의 어머니 오음전(86살)과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 거주하고있는 김길현의 누이 김영미를 비롯한 해외동포연고자들이 많이 살고있다.

얼마전 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오음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로부터 이곳은 쌀과 물고기가 많고 금, 은보화가 풍부하여 살기좋은 고장이였다고 한다.

그것을 말해주는듯 유적유물들도 많은데 이곳 학림리 송월산기슭에는 고려초기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학림사라는 절간이 있고 박산, 청계, 석장 등지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인 고인돌 그리고 리조초기에 쌓은 토성도 있다.

침략자들의 군화자국이 찍혀지기 시작한때로부터 순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살던 평화롭던 이고장에는 불행이 가실 날이 없었다.

이곳에 기여든 일제는 락연광산의 금, 은, 동 정광을 1만 5천여톤이나 강탈해갔고 논벌에서 나는 옥백미를 해마다 수천석이나 실어갔다. 전어, 해삼을 비롯한 고급수산물은 착취자들에게 빼앗겼다.

심고 베여먹기만 하고 아무러한 수리화시설도 없었던 비옥한 땅은 황페화되여 해마다 기근지대로 변해갔다. 탈곡한 다음날부터 농군들은 쌀걱정을 하며 풀죽을 먹어야만 했다.

교육과 보건 시설도 한심한 형편이였다. 학교라고는 《국민학교》와 서당이 몇개 있었는데 돈이 없는 백성들은 공부할수가 없어 인구의 92%이상이 문맹자였다. 11개 면중 10개 면에는 의사가 없었고 아무러한 치료대책도 없다보니 항상 전염병이 돌았는데 1944년 한해에만도 2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대로 고향땅에서 살아오던 순박한 이고장 토배기들은 더는 살수가 없어 하나둘 떠나갔다. 그때 해외로 흘러간 동포들이 그 얼마였던가. 그들중 거의 전부는 아직도 이국땅에서 살고있다.

어둡던 이고장에도 광명의 날은 오고야말았다.

장연군 주민들의 애국열의, 건국열의는 높았다.

조국해방을 가져온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이 하도 고마와 이고장 인민들은 건국의 그날에 읍지구의 가장 경치좋은 자리에 장군님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장연군 사람들의 남다른 긍지이고 자랑이다.

해방후 근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몇번이나 바뀌였으니 장연군의 모습도 천지개벽하였다.

초가집이 없어진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읍지구만 해도 도시처럼 번창해졌다.

농업지대여서 건국의 나날에 상좌저수지를 착공했던 이곳 농민들은 오늘에 이르는 기간 10여개의 저수지를 더 건설하였고 최근년간에는 대동강의 물이 이곳에까지 흘러들고있다. 그리하여 물걱정을 모르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다.

읍지구의 야산에는 500여정보의 과수원이 조성되여 지난해에도 사과, 배, 감 풍년이 들었다.

전야에는 오곡백과 무르익고 들판에는 양떼가 흐른다.

바다에서와 장연남대천어구에서는 까나리, 가재미, 전어, 농어, 해삼, 낙지 등을 잡아내고 남대천과 여러 저수지들에서는 가물치, 붕어, 잉어, 기념어들을 낚아낸다.

군에는 중앙공장과 함께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위주로 하는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여 군내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데 그 가지수는 수백종이나 된다.

이곳 특산물인 보석류, 직물과 철재류 그리고 서해의 자랑인 까나리와 해삼은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있다.

읍지구와 농촌리들에는 지형조건에 맞게 도로가 전개되고 살림집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아담하게 건설되였다. 주택지구에 알맞게 편의봉사망이 배치되였고 문화회관, 역사가 멋쟁이로 건설되였다. 역전 앞거리에는 지난해에만도 백수십세대의 현대적살림집이 건설되여 입사하였다.

《이곳은 소설들인 〈인간문제〉, 〈소금〉을 쓴 해방전 우리 나라의 비판적사실주의녀류작가 강경애의 고향이며 그의 묘지도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한 로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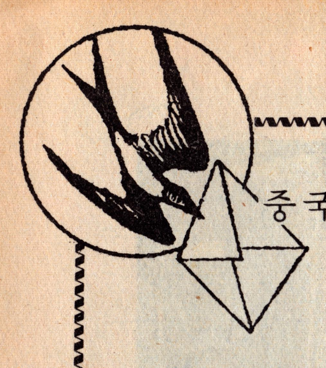
세월이 좋고 생활이 유족하니 장수자들도 많다. 얼마전까지도 이곳 광천리에는 110살을 넘긴 두 장수자가 살고있었다. 리경욱동포의 어머니도 지금 86살이지만 환갑나이의 사람처럼 정정하다. 그런 나이의 장수자들은 마을마다에 수두룩하다.

우리와 만난 해외동포연고자들의 말은 한결같았다.

《좋은 세월이지요. 나이를 더 먹기전에 이국땅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고향구경을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고향은 혈육들을 기다리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본사기자



중국 길림성 화룡현 서성향 북고성3대 황영애

누님에게 전합니다

누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혹시 이 동생 생각때문에 잠못드시지나 않는지…

저는 지난 9월중순경에 회령에 들렸다가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처와 함께 서른세해만에 중국으로 가서 누님을 비롯한 그리운 혈육들과 상봉하고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삼촌!》, 《외삼촌!》 하고 부르며 덥석덥석 안기는 조카애들중에는 처음 보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애들은 조금도 서먹서먹해 하지 않더군요. 아마 이 삼촌을 마음속으로 무척 그리며 기다렸던것 같았어요.

누님을 찾아서 이렇게 붓을 든것은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지금 사촌누님(황순희)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정숙형수님이 뜻깊은 여든돐생일을 쇠였답니다. 누님도 잘 아시겠지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중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묘령전투에서 희생된 사촌형님(황태운)의 미망인말예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 연길현에서 활동하던 유격대의 용감한 녀성대원이였던 형수님은 남편을 잃은데 이어 하나밖에 없던 자식마저 열병으로 잃은후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사촌누님네집에서 살아왔는데 어느덧 년세가 80고령에 이른것입니다.

년세는 비록 많지만 매우 정정하답니다. 아직 이발도 하나 빠지지 않았고 안경이 없이도 신문을 보는데 그나이로서는 좀 놀랍다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은 찾아간 기회에 《아니… 형수님은 어쩌면 그리도 정정하시우? 도무지 나이를 잡수시는것 같지 않아요.》 했더니 오히려 눈을 흘기면서 《사촌시아우는 별소릴 다 하오. 나라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고 각근히 돌봐주고있다오. 의사들이 가져다주는 보약만해도 1년동안에 내가 먹는 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오? 두고 보오. 이 좋은 세상에서 내 어련히 100살까지는 살지 않으리!》라고 호기있게 대답하더군요.

형수님의 여든돐생일연은 주변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소박하면서도 의의깊게 거행되였습니다.

항일투사로병들 여러명이 축하하러 왔고 공군부대에서 장령으로 복무하고있는 조카 장근이 내외간도 오고… 재작년에 어느 한 군관학교를 나와 지금은 조선인민군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고있는 사촌누님의 외손자 광일이도 만났는데 얼마나 름름하고 훤칠하게 번졌는지 인차 못 알아보겠더군요.

사실 사촌누님네집에서는 형수님의 요구도 그렇고 해서 조용히 여든돐생일상을 차리자고 했지만 어느새 낌새챘는지 동네사람들이 저저마다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안고 축하해주러 오는통에 예상외로 판이 좀 커졌습니다.

동네의 부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부르면서 분위기를 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이에 대해 몹시 고마와했고 저도 이처럼 한가정의 경사를 자신들의 경사로 여기며 사심없이 찾아와 축하해주는 광경앞에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화목한 한가정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스며들더군요.

형수님은 작년 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을 만나주실 때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사촌누님은 한구들 모여온 친척들에게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 충성을 다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하셨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으로 사업하고계시는 사촌누님은 75살 고령인데도 얼마나 정열이 있고 패기가 있는지 손에 총을 잡고 백두산에서 왜놈들과 싸우던 항일유격대시절의 그 기백이 그대로 살아있는것 같아요.

《항일투사 황순희》라고 하면 온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누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일 고마운것은 여럿이나 되는 조카애들모두가 조선민족의 얼을 깊이 간직하고있는것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철이가 고국에 대한 감정이 각별히 강렬하더군요.

평양에 세번씩이나 와본 수철이는 수도의 눈부신 모습에서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말끝마다 그저 《평양, 평양》이였습니다. 그애가 부러워 평양에 한번도 못와본 조카애들은 나를 붙들고 평양구경을 시켜달라고 마냥 조르는게 아니겠어요.

아무때건 그애들도 평양으로 와서 약동하는 조선의 숨결을 가슴뻐근하게 느껴볼 기회가 꼭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님! 년로하고 병약한 몸인데 특별히 건강에 주의를 돌리세요. 뭐니뭐니해도 몸부터 건강해야지요. 그리고 조카애들이 부디 조선민족의 넋을 잃지 않도록 늘 채찍질해 주십시오.

제가 중국으로 가서 혈육들과 만날 때 다시금 사무치게 느껴진것은 망국의 피맺힌 그 세월이 없었다면야 어찌 이처럼 기나긴 리별과 눈물겨운 상봉이 있을수가 있겠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에겐 조국이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으로 되여있는것이 아니겠나요.

그럼 오늘은 이만 붓을 놓으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안녕히!

평양시 중구역 오탄동 31반

동생 황태범올림 1993. 12. 20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전승 40돐을 맞으며 평양의 풍치 아름다운 보통강반에 15만평방메터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 우리 시대의 자랑찬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일떠섰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밑에 건립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가렬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1950—1953)에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혁명전쟁의 승리탑이며 년대를 이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도록 고무추동한 영웅들의 대군상이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심이 나래치는 신념과 의지의 기념비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은 대문과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 헌시비 그리고 중심주제《승리》상과 10편의 부주제조각군상으로 구성되여있으며 기념물의 배치와 교양적기능에 따라 친필비교양마당, 군상교양마당, 중심주제《승리》상교양마당으로 구분되여있다.

대문으로부터 중심주제상까지의 종심축길이는 400메터이고 너비는 200메터이다.

전승기념탑의 입구에는 2중처마형식으로 된 돌탑형식의 현대적건축미를 가진 대문이 세워져있다.

대문에는 위대한 주석께서 활달한 필치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라고 쓰신 현판이 모셔져있어 기념탑의 웅장하고도 정중한 풍격을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대문의 좌우측기둥에는 《1950》, 《1953》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고 뒤면에는 조국해방전쟁참전기념메달과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이 장식되여있다.

대문의 좌우측기둥 앞면에는 전쟁시기의 복장과 무기를 갖춘 륙해공군 3인부각군상과 현대적 복장과 무기를 갖춘 3인부각군상이 형상되여있다.

대문을 지나면 좌우에 위대한 주석의 친필비와 헌시비가 자리잡고있다.

수백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진 화강석통돌을 정교히 다듬어 세운 친필비에는 위대한 주석의 친필이 정중히 새겨져있다.

친필비에 새겨진 글발은 다음과 같다.

《항일의 전통을 계승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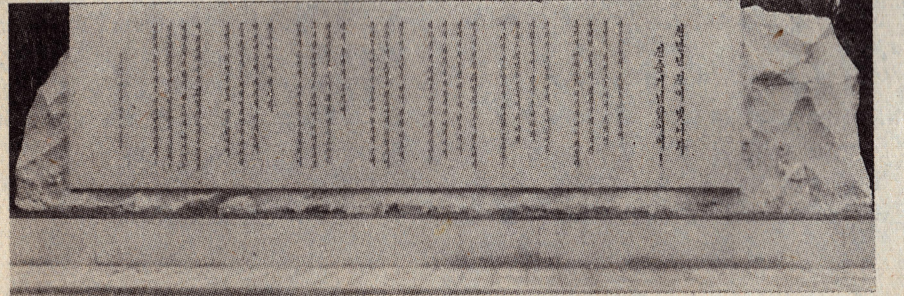
김일성

1993. 7. 27.》

친필비와 같은 규모로 화강석통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세운 헌시비에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과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칭송한 내용이 수록되였다.

또한 헌시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두리에 일심단결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빛내여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불타는 결의가 담겨져있다.

친필비와 헌시비를 지나면 붉은 대리석판으로 된 당기발과 군기를 배경으로 서있는 조각군상 《초병》이 정중한 자세로 형상되여있다.



기념탑은 위대한 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의 위대한 생활력을 중심주제《승리》상을 통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승리의 희열을 안고 높이 추켜든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는 미더운 인민군전사의 자세는 위대한 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의 위대한 생활력,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싸우는 길에 전사의 영예와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다는 사상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기념탑은 부주제군상들을 통하여 중심주제상의 주제사상을 더욱 승화시키고있다.

부주제군상들은 탑의 대문과 중심주제《승리》상사이에 량옆에 세워져있다.

오른쪽에 《락동강도하전투》, 《조국의 바다를 지켜》,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 《직사포를 고지에로》, 《월미도의 영웅들》이, 왼쪽에 《대전해방전투》, 《조국의 하늘을 지켜》, 《해방된 남녘땅에서》, 《후방인민들의 전선원호》, 《1211고지방위자들》이 있다.

이렇듯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은 조각군상들의 배치와 구성형식이 새로울뿐아니라 탑의 형상창조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전승기념탑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라고 부르는것은 중심주제《승리》상을 형상함에 있어서 이여의 기념비들과는 전혀 새롭게 인간형상을 탑화한 우리 식의 새롭고 독창적인 기념비양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지대와 장소는 공원화되여있다. 전승다리를 새로 놓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련결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서교양의 힘있는 장소로 되고있다.

오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으로는 국내 방방곡곡의 근로자들과 군인들, 청년들뿐만아니라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윤대중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2)

앞에서는 주체의 사회력사원리가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았다.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를 옳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합니다.》

이 고전적명제에는 자연의 운동과 사회적운동의 근본차이가 명백히 밝혀져있다.

사회적운동이 물질의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며 사회적운동에도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한다. 례하면 모든 사물현상은 다 서로 련관되여있다든가, 사물현상은 낡은것이 극복되고 새것이 승리해나가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한다든가, 모든 사물은 점차적인 량적변화를 하다가 일정한 단계에 가면 질적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사물로 변화발전한다든가 하는 법칙은 자연계에서처럼 사회에서도 그대로 작용한다.

이 법칙의 경우에도 자연계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맹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자연의 운동에 주체가 없다는것은 이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가 없다는것이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 자연에는 자연의 운동을 일으키는 의식적인 담당자가 없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세계에 있는 사물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주동과 피동을 가를수 없다.

가령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여 태양계의 운동이 태양의 주동적인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수 없다.

자연계에 있는 꽃과 벌의 관계를 보자. 벌은 꽃의 꿀을 빨고 꽃은 벌에게 꿀을 빨리운다. 벌이 꿀을 빠는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후대를 남기기 위한 본능적행동에 불과하다. 꽃은 벌에게 꿀을 빨리우지만 그대신 벌을 리용해서 수분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들의 관계 역시 자기의 생존방식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호상작용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어느것이 주동적이고 어느것이 피동적인가를 말할수 없다. 자연의 운동에는 그것을 일으키는 의식적인 담당자, 운동의 주체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즉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가 있다.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도 담당자가 있고 그의 주동적인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고 벌어진다.

사회는 사람의 집단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회적운동에서 이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며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는 바로 사람이다. 이 사람이란 인민대중을 의미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그러면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되는 리유는 무엇인가?

그 리유의 하나는 모든 사회적운동이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일어난다는것이다.

원시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발전과정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났다. 노예들의 투쟁, 농민운동, 로동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다 그러하다.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떠나서는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 리유의 다른 하나는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인간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자면 물질적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산업혁명의 시초를 열어놓았다고 하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로동자인 왓트였다. 의학계에서 하나의 사변이였던 천연두예방약을 발명한것도 어느 한 자그마한 도시의 병원에서 일한 젠너라는 의사였다.

과학기술은 물론 예술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를 개조하는 결정적력량이다.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낡은 사회가 새로운 보다 선진적인 사회로 끊임없이 개조된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는 끊임없이 개조되며 력사가 전진한다. 결국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으로 된다.

여기에서 옳게 리해할것은 반동적통치자들이 감행하는 전쟁은 사회적운동이 아니며 그것은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으며 사회발전을 억제하고 력사를 퇴보시킨다는것이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외과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하면서 《전쟁유익설》을 운운하는것은 전쟁에 리해관계를 가진자들의 궤변이다.

일본의 해외팽창야망과 핵대국화정책

최근 일본은 세기적으로 품어오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밑에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을 열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그들은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대국화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이미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정치대국, 군사대국이 되려는 야망밑에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나섰다.

최근 일본방위청 장관이 기자와의 회견에서 《앞으로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이 일본무력의 기본과업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고 뇌까린 사실과 일본우두머리들이 《안보문제에서 일본은 행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전쟁포기, 비핵 3원칙을 규제한 일본의 현행헌법과 《자위대》에 관한 법을 수정하여 핵대국화를 다그치며 해외팽창을 위한 무제한한 군사활동의 자유를 공공연히 요구하고있음을 말해주고있다. 그들이 줴치고있는 일본의 《국제적공헌》이니 《평화유지》니 하는 주장은 기실 저들의 해외파병을 합리화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지배층은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더욱 급속히 줄달음치고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그들이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본의 군사비지출은 지난해에는 1957년에 비해 32배로 늘어나 세계 제2위의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군사력증강을 얼마나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는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일본《자위대》의 무력은 급속히 현대화되여 지난시기 황군의 화력의 수십배를 릉가하고있다.

일본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을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바꾸고 그 작전지역도 동북아세아로부터 태평양과 인도양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먼거리공격과 장기전능력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무력증강을 다그치고있다.

일본은 적의 공격을 일본령토밖에서 《사전제압》한다는 구실밑에 해외작전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단거리미싸일을 장거리미싸일로 바꾸고 장거리대형수송기, 대형수송함, 공중급유기 등 원거리타격에 필요한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있으며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고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해외팽창목적에 맞게 조선반도와 필리핀, 남미주, 미국, 구라파 등 해외에 나가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저들의 《자위대》를 《지역분쟁억제능력》으로 묘사하면서 《자체방위력의 완결》, 《지역분쟁억제능력 강화》의 간판밑에 해외작전능력을 높이는것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일본우두머리들이 군사장비를 현대화하고 기술기반의 강화, 전방과 후방 작전지원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이 현시기 일본의 《방위력정비》의 방향이라고 뇌까린것은 그들이 얼마나 군사력강화에 광분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이처럼 《자위대》의 해외팽창의 길을 넓게 닦아놓은 일본은 재침의 첫 마수를 남조선에 뻗치고있다. 최근 일본과 남조선의 우두머리들사이에서 《군사관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며 호상 군함들의 기항을 허용할데 대하여 모의한것은 남조선에 일본 《자위대》무력의 침투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것이다.

일본지배층은 저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것이 힘이 강하지 못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며 그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핵무장을 갖추는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싸일을 비롯한 공격무기의 국산화를 실시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특히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지배층들이 군사대국화를 꿈꾸면서 핵대국이 되기 위해 광분하고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핵대국화정책은 일본자본의 해외팽창요구로부터 나온것이다. 또한 핵대국이 되여야 국제무대에서 군사적패권을 틀어쥐고 약소국가들이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게 할수 있으며 렬강들과 맞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일본은 플루토니움을 앞으로 30년동안에 400톤 축적할 계획이다. 이것이면 1만여개의 원자탄을 만들수 있다.

전 일본수상은 지난해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조선의 《핵위협가능성》에 직면하고있기때문에 《핵보유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뇌까리였다. 일본은 이미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축적하고있을뿐아니라 핵기술과 핵무기운반수단의 개발에서 세계적수준에 도달하고있다. 그들은 《핵무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제조》할것이라느니, 《헌법을 개조하고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느니 하고 로골적으로 말하고있다. 미국핵통제연구소 소장까지 일본의 플루토니움 대량축적은 《동북아세아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고 말한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외국핵기지들에는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와 함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있으며 일본과 그 주변에서는 핵전쟁연습이 빈번하다. 동서대결이 종식된후 일본기지에 있는 핵개발수단들의 화살은 주로 조선에 돌려지고있다.

일본의 핵대국화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해외침략이 뒤따른다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지금 동북아세아는 세계적으로 핵이 가장 많이 배비, 축적되여있는 곳으로 되고있다. 일본이 핵대국이 되면 불가피하게 핵전쟁이 터질수 있다. 일본은 아세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대국화를 반대하고 해외침략야망을 저지시킴으로써 아세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신념과 의지의 화신

전 인민군종군기자 리인모의 수기

(전호에서 계속)

그런데 감호자중 인천교도소에서 장기복역하고 출감한 고노 기시오라는 일본인이 하나 있었는데 76년경 독방에 있던 그가 공기통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생전에 접촉할 기회가 없어 그가 어떤 리유로 이국땅에서 장기복역을 했는지, 죽음을 결심한 내막이 무엇인지(물론 《사회안전법》이란 괴물앞에 절망한 때문일것은 짐작할수 있으나)를 자세히 알수 없어서 안타까왔다.

이 사건이 일어난뒤 독거제도가 없어졌고 손바닥만한 공기통마저도 막아버렸다. 그무렵 일반사에서는 형무소가 아니고 교도소라 바꾼 이름에 걸맞게 감방에서 철망을 떼여내는 등 전시효과를 노린 조치나마 시행되고있었는데 8사창문을 막은 철망은 오히려 두꺼워져가기만 했다. 바닥을 파서 통을 묻고 그우에 뚜껑을 덮어놓은 변기통에서는 구더기가 허옇게 기여나왔다. 식사, 운동, 서적 문제 등도 징역살이와 하등 다를게 없었다. 대부분 20여년씩 온갖 고초속에 징역을 살아 만기를 채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고도 옥문을 나서지 못하고 보안감호란 이름아래 징역살이와 다를바없는 령어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게 기막히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간수들은《청주에 호텔을 짓고있으니 잠시만 참으라.》고 했다.

78년 11월 그들이 짓고있다던 《호텔》, 청주보안감호소가 완공되여 그때까지 대전에 있던 감호처분자 110명이 청주로 이감되였다.

그러나《감호소 가면 모든게 달라진다.》던 대전교도소측의 흰소리는 눈가리고 아웅이였을뿐이다.

한편 감호소에서조차 사소한 꼬투리로 지하실에 설치되여있는 고문실에 끌려가 심한 폭행을 당한 동지도 드물지 않았다.

우리들의 쌓인 분노는 79년 전체 단식투쟁으로 폭발했다. 그런데 저들의 대응은 가차없었다. 린근 청주교도소의 간수, 경비교도대까지 모두 동원해 전원에게 수정(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가했다. 이 수법 또한 달라진게 없구나싶었다.

이 투쟁후 감호소측은 처우개선은커녕 기존의 감방열쇠밑에다 새로 자물통을 하나 더 달았다. 뒤창문에 철망도 두껍게 붙였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죽고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해서 사회에 《민주화바람》이 불어도 청주보안감호소는 폭력이 지배하는 독립공화국일뿐이였다. 80년 여름이였던가, 하루에 한번 있는 운동시간에 나갔다왔더니 하도 덥고 땀이 쏟아져내리기에 나는 감방뒤에 붙어있는 변소에 들어가 변소뒤창으로 들어오는 한줄기 바람을 쐬고있었다. 그때 마침 감호과장 오기수라는자가 지나가다가 내가 방에 앉아있지 않은것을 보았던 모양이다. 갑자기 간수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 불문곡직 지하실로 끌고가더니 온몸을 포승줄로 꽁꽁 묶고는 마구 때리는것이였다. 허가도 안받고 방에서 일어났다는게 나의 죄과였다.

《이놈들, 너희들도 사람이냐.》

아픔보다 분노가 솟구쳤다. 혼신의 힘을 다해 울부짖었지만 구타는 계속되였다.

소지에게 떠메여 감방에 내팽개쳐진뒤 정신이 가물가물한중에도 몸서리가 쳐졌다. 백보를 양보해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권》이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킬수도 있다고 치자. 사상의 전파와 조직화를 막기 위해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늙어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켰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계속한단말인가. 저들이 원하는것은 대체 무엇인가… 전향서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목숨인가.

동지들의 쌓이고쌓인 분노는 80년 7월 7일 다시한번 폭발했다. 사회에서는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하여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여있던 시기였지만 철벽안의 우리들은 광주항쟁이 있었음은 알지 못했다. 단지 간수들이 비상복을 입고 여러가지 점에서 계속 우리들을 바짝 조여왔기때문에 뭔가 심상찮다고 느끼고있었을 따름이였다.

그중 하나가 책문제였다. 그동안 우리들의 줄기찬 요구로 조금 늘였던 서적보유권수를 그즈음 감호소측은 다시 줄여버렸다. 7월 7일 아침 내가 있는데서 몇개 감방 건너에 들어있는 서준식군이 최종대부장에게 서적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적보유권수를 왜 갑자기 세권으로 줄인겁니까? 종전대로 환원해주시오.》

《세권이상 안돼.》

《대체 리유가 뭡니까?》

서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그러자 최부장이 고함쳤다.

《저××, 끌어내!》

그러자 감방문에 붙어서있던 서군이 맞받아 고함을 질렀다.

《못살겠다!》

여기에 호응해 이방저방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간수 10여명이 몰려와 그중 감방문을 찬 황용갑동지를 수갑을 채워 지하실로 끌고갔다.

우리들은 황동지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전원단식에 들어갔다. 우리가 단식에 들어가자 감호소측은 광주사태가 어떠니 계엄이 어떠니 하면서 감호소밖에 땅크까지 와있으니 단식은 풀라고 협박했다. 말을 듣고보니 긴장된 상황인것은 분명했지만 황동지가 돌아오기전에는 투쟁을 멈출수 없었다.

이전까지는 한방에 세사람씩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단식에 들어가자 7월 11일부터 모두 분산시켜 독방에 집어넣었다. 단식 7일째인 7월 13일 감호소측은 동지들을 차례로 끌어내 강제급식을 시행했다. 감호과사무실에 한번에 네사람씩 붙들어다 의자에 묶어 앉혀놓고 고개를 젖히고 강제로 입을 벌려 목구멍에 호스를 밀어넣었던것이다.

원래 강제급식이라고 하면 호스로 묽은 미음을 주입하는것인데 저들은 소금을 잔뜩 녹인 짠 소금물을 들이부었다.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으며 단식을 하고있었기때문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목이 타서 할수 없이 물을 먹게 하려는 속심이였다. 김용성, 최남규, 리종, 서준식 동지 등 네사람이 감호과로 붙들려갔을 때 우선 김동지와 최동지가 강제급식을 당하게 되였다고 한다.

최동지가 끌려들어가보니 먼저 들어간 김용성동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고있었다. 최동지는 《호스가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간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다. 김동지가 이렇게 되자 그들도 강제급식을 더이상 계속할수는 없었다.

그런데 김동지보다 먼저 강제급식을 당한 변형만동지 또한 의식불명상태로 업혀나가 위급한 상태였다. 그들은 강제급식을 실시한후 변동지를 떠메다가 지하실에 내팽개쳤다. 이미 12~13명의 동지들이 지하실벽에 기대여 토하기도 하고 설사를 쏟아 지하실전체가 오물로 홍건했다. 변동지는 지하실에 오자마자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그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여나온다고 간수부장이라는자는 《방성구(딱딱한 뭉치를 입안에 쑤셔넣어 소리를 막는 행형도구) 채워!》 하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지하실에 갇힌 동지들은 새벽녘이 되여서야 방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그때까지 변동지에게는 아무런 응급처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뒤 변동지가 언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는 알수 없다. 우리가 들은것은 그저 죽었다는 소식뿐이였다.

감호소측은 강제급식으로 동지들을 살상하면서 한편으로 사기극까지 연출하였다. 강제급식이 실시되던 전날쯤이던가 나는 또 간수들에게 끌려나갔는데 가보니 감호과장 오기수가 의무과장까지 데리고앉아 협박을 하는것이였다.

《계엄사에서 감호소단식문제를 예의주시하고있다는걸 알아? 오늘도 복식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우리도 어쩔수 없지. 계엄사령부로 넘기겠어.》

이번에는 옆에 있던 의무과장이 나서서 나를 진찰하더니 걱정해주는척 했다.

《당신 혈압이 130~230인데 이런 상태에서 계엄사령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소?》

밖에는 시동을 걸어놓은 뻐스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고있었고 소지들이 내 소지품을 뻐스로 옮겨가느라 소란을 피웠다. 게다가 누군가가 밖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빨리 내보내!》

그래도 내가 계속 버티자 오기수는 연신 재촉이였다.

《당신 어쩌려구 그래?》

《먼저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고 보고해주시오.》

결국 안되겠다싶었던지 그는 아예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나도 성이 나서 맞고함을 쳤다.

《보낼테면 보내라. 군인들도 너희들보다는 나을것이다.》

오기수가 잠간 나갔다오더니 간수에게 소리쳤다.

《이××, 계엄사로 보내버려.》

잠시후 뻐스에 태워져 내가 끌려간곳은 다름아닌 청주교도소 미결감이였다. 청주교도소는 감호소와 담장을 맞대고있다.

생각해보니 오기수는 보안감호소에 남아있는 동지들에게 우리가 계엄사령부로 끌려갔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을게 틀림없었다.

7월 7일부터 시작된 감호소의 단식투쟁은 17일을 끌었다. 대부분 나이도 고령인데다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 질병을 한둘씩 가지고있는 우리 동지들이 17일간이나 단식한다는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일수밖에 없었다. 강제급식과정에서 두 동지가 숨진데 이어 투쟁을 마친후 두 동지가 후유증으로 죽었다. 그들의 시신이 들려나갈 때의 슬픔, 내가 살아남는다면 저 동지들의 죽음을 꼭 세상에 전하리라고 다짐하였다.

단식투쟁을 마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했던대로 감호소측의 태도가 표변했다. 투쟁중 자신들의 강제급식으로 두 동지가 사망하자 문제가 커질가 기겁을 한 그들은 담요도 좋은것을 가져다 깔아주고 방충망도 새것으로 갈아주는 등 선심(?)을 쓰는척하였다.

그러나 일단 단식이 끝나자 개선조치가 나오기는커녕 감호소측은 규률을 더욱 강화하였다. 겨울이 되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들이 추울 때면 목도리처럼 목에 두르던 수건도 두르지 못하게 했고 담요도 깔고앉지 못하게 하였다. 다늙어 뼈만 남은 엉덩이로 마루바닥에 정좌하고앉아 하루종일을 지낸다는게 보통일이 아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항의했지만 간수들의 태도는 5.16직후만큼이나 경직되여있었다.

바야흐로 박정희의 화신이 재림한듯한 세월이였다.

이후에도 크고작은 처우개선투쟁은 계속되였으나 87년 6월항쟁이전까지는 거의 개선된 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 단식투쟁과정에서 모든 동지들이 독거수용된후 우리들은 88~89년 보안감호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독방에 있어야 했다. 혹시나 여러 사람이 비좁게 한방에 북적대는것보다 독방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실분이 계실가 해서 《독방의 고통》에 대해 잠시 설명해보겠다.

하루종일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채 10년, 20년을 지내다보면 독거수들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따뜻한 감정교환이라는것이 어떤것이였는지조차 잊어버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자연히 심성은 메마르게 되고 마치 숨쉬는 화석같은 존재가 되여버린다고나 할가. 사방이 무섭도록 조용한 저녁, 어제와 오늘이 잘 구분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언제나처럼 독방에 앉아 《윙》 하는 형광등소리를 듣고있느라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뼈저리게 스며든다.

《이제 내가 미치는구나.》

그러나 인간의 따뜻한 눈길, 정다운 목소리를 그리워하는것은 차라리 사치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정서에 오래 잠겨있을 사이도 없이 무자비한 물리적폭력은 어김없이 다가왔으니까.

85년 또 두사람의 동지가 자결하였다. 여전히 설쳐대고있던 전향공작전담반의 고문에 죽음으로 항거한것이다. 교도관들에게 맞아 온몸에 피멍이 든채 독방에 실신해있던 리용운동지가 《이대로 맞아죽느니 항거하여 놈들의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동지들, 내 몫까지 싸워주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 동지는 충청도 출신으로 중학교영어교사를 지낸분인데 전향공작반에서 리선생을 괴롭히려고 한방에 넣은 정신병자가 오히려 리선생의 인격에 감복해 그의 수발을 들었다는 일화를 지녔던 분이다.

(다음호에 계속)

남포시 (1)

남포시는 우리 나라의 서북부 대동강하류의 오른쪽연안에 자리잡고 있다.

남포시는 평안남도에 속해있다가 1979년 12월부터 직할시로 되였다.

현재 남포시는 5개의 구역(천리마, 대안, 강서, 와우도, 항구)과 1개의 군(룡강)으로 이루어져있다.

해상운수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는 남포시는 해방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지하자원 및 농산물 략탈을 위한 주요통로로 리용되였다.

당시의 남포항일대는 보잘것없는 부두시설과 몇척의 낡은 배밖에 없는 초라한 포구에 불과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에 몸소 남포시를 찾으시여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이땅우에 부강한 새 조국을 세워 남부럽지 않게 떳떳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주석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남포시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남포시는 수도 평양의 해상관문도시로, 현대적인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시에는 국제무역항인 남포항이 있다.

남포항은 우리 나라의 해상운수와 대외무역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이 항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수출품들이 대외로 나가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거래가 맺어진다.

남포항은 물깊이가 깊고 대동강어구에서 깊숙이 들어와있으며 바람의 피해로부터 배들을 보호할수 있게 지형조건이 갖추어져있다.

지난날 겨우 5천톤짜리짐배 한척밖에 댈수 없던 항이 오늘은 여러개의 큰 부두를 가지고 수만톤급 대형짐배들도 동시에 여러척씩 댈수 있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항으로 전변되였다.

항에는 항만기중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항만설비들과 벨트콘베아수송선, 철도인입선 등 운반수단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으며 짐을 싣고부리는작업이 모두 기계화되였다.

남포항에는 다른 나라 선원들을 위한 문화봉사기지로서 선원구락부가 있다.

선원구락부에는 침실들과 식당, 연회장, 특산 및 기념품 매점들이 있으며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훌륭히 마련되여있다.

구내는 정원으로 꾸려지고 배구장, 롱구장 등 체육오락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구락부건물은 변화무쌍하고 독특한 건축미를 가지고있는데 뒤의 남산과 앞의 넓은 바다에 잘 어울려 해안의 운치를 한층 더 돋구고있다.

선원구락부에서는 다른 나라 선원들의 요구에 따라 평양과 남포시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대한 참관, 관광도 조직하며 그들이 뭍에서 충분한 문화휴식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지난날 천대와 고역에 시달리는 배군들의 처량한 한숨소리만 높던 여기 남포항일대가 오늘은 로동의 희열과 생의 랑만이 한껏 넘쳐나는 행복의 포구로 전변되였다.

대동강의 하구 20리 날바다에 거창하게 일떠선 굴지의 서해갑문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서해에 세계 1등급의 갑문을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1981년 5월에 친히 현지에 나오시여 그 위치를 잡아주시고 건설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주석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영웅적투쟁을 벌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와 자재, 우리의 힘으로 만년대계의 서해갑문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서해갑문은 갑실과 대형회전다리, 수문, 여러개의 물고기길을 가진 대언제로 되여있다. 언제우에는 철길, 자동차길, 다님길이 있다.

갑실로는 대형짐배들도 드나들수 있다.

서해갑문에는 위대한 주석의 현명한 령도업적과 갑문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들이 있다.

서해갑문이 건설됨으로써 서해안의 간석지와 부침땅의 물문제가 완전히 풀리였으며 대동강은 억년 수해를 모르는 대인공호수로 되였다. 또한 서해안과 대동강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 서해중부연안에 대륜환선이 형성됨으로써 평양—남포—사리원사이의 수송과 교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였다.

남포시의 해상운수도 매우 발달하였다.

대동강을 리용하여 남포에서 평양, 대안, 송림, 제도리(황해남도 은천군)사이에는 려객선과 짐배들이 정상적으로 다니고있으며 시의 전반적수송에서 해상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철도운수도 해상운수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평남선은 평양과 평남도 온천군을 련결하는 철길이다. 이전에 부르던 평남선(평양—남포)과 평안선(남포—온천)을 합쳐 평남선으로 부르게 되였다.

이 철길은 평양시와 대동강하류일대의 공업지구들, 우리 나라 해상운수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남포항을 련결시켜준다.

그러므로 이 철길은 물동량이 많고 화물구성도 매우 다양한 철길의 하나이다.

주요화물은 석탄, 광석, 금속 및 기계제품, 세멘트, 농산물, 목재, 소금 등이며 그밖에 대외무역과 관련되는 제품들이다.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의 남포시의 전망은 더욱더 주목되고있다.

본사기자



남포항을 통하여 많은 뜨락또르들이 외국에 수출되고있다.



남포항에서는 많은 짐을 싣고부린다.



남포항의 일부





항구려관상점에는 남포시의 특산물들이 많다.

항구려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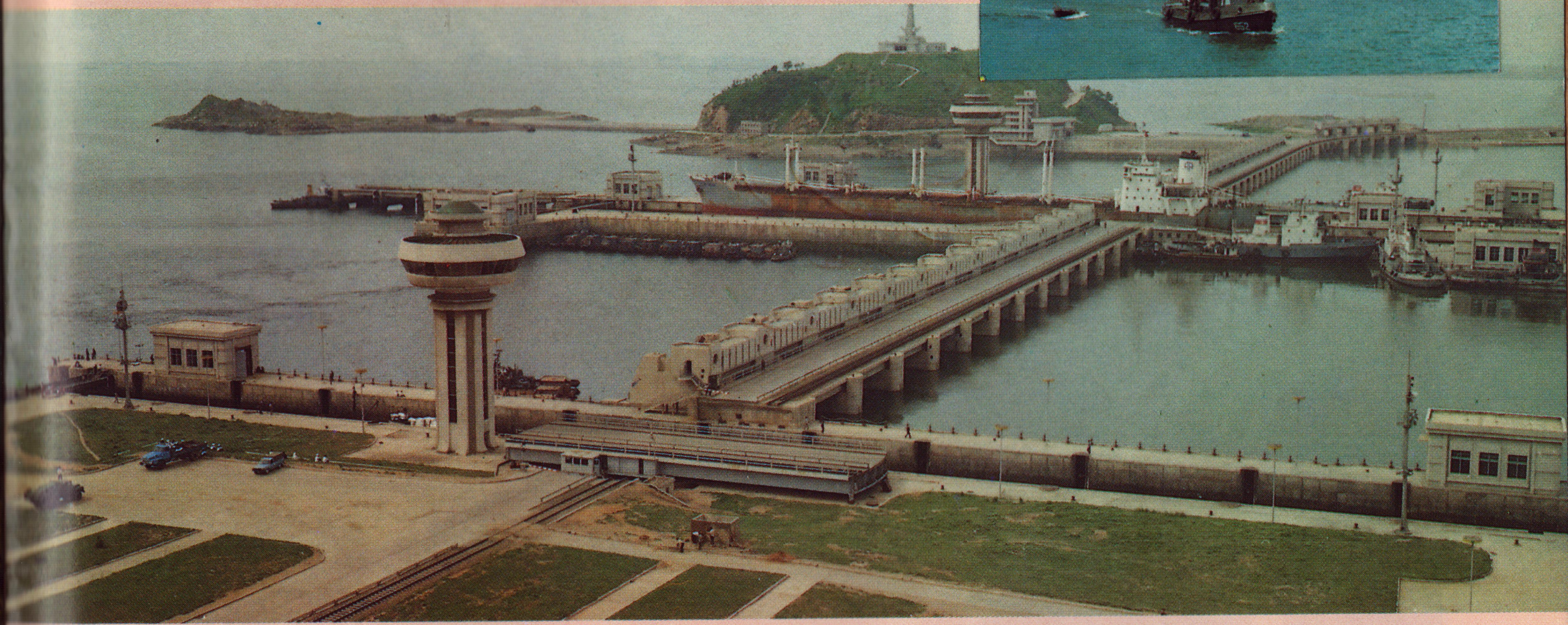
항구문화도시 남포시의 일부



서해갑문 갑실로 배들이 통과한다.



서해갑문





설경

꼬마수학가

우리 나라에는 7살 난 어린이가 전자계산기로 프로그람을 작성하여 텔레비죤화면에 꽃을 그리는 《꼬마수학가》가 있다.

아직은 밤마다 어머니품에서 잠투정질을 하고 식탁에서는 밥타발, 찬타발을 할 어린 나이이지만 전자계산기로 프로그람작성을 솜씨있게 하는 영특한 어린이.

그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동하동 과학자아빠트에서 사는 신의주운동기구공장 로동자 김종환의 맏아들 김철민어린이이다. 그의 어머니 박순옥은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일하다가 출가하여 철민이를 낳은후부터 집에서 부양을 받고있으며 그의 누나 김수정은 13살인데 신의주제1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그의 가정을 보면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철민이네가 머리 흰 로박사들만이 사는 과학자아빠트에서 살게 되였는가.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꼬마수학가》의 성장과정을 더듬어보자.

철민어린이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3살 때부터이다. 그때 철민어린이는 벌써 우리 말을 다 할줄 알았으며 만단위까지의 속셈과 인민학교 국어교과서를 거침없이 읽었다.

그것은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받았거나 그 누구의 특수교육을 받아서인것이 아니다.

철민어린이는 2살 때부터 어머니품에 안겨 텔레비죤을 시청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 말과 글, 수자를 익히게 되였으며 전국인민학교학생들의 수학경연을 보면서 간단한 계산법까지 알게 되였다.

그 사실이 인민반과 아버지 직장에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철민어린이가 《신동》이라는것을 알게 된 아버지 직장의 책임일군은 그를 체계적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기관들과 련계밑에 유치원에서 학교전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2개월 남짓한 기간 학교전교육을 주고나니 그이상 그의 지능을 발전시켜줄수 없었다. 그리하여 철민어린이를 동하인민학교에서 맡아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해당일군들과 부모들은 근심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탁아소에 가야 할 나이의 어린이가 과연 인민학교과정안을 떼 받아들이고 45분수업을 참아내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유능한 수학선생에게 맡겨 개별교육을 주기로 하였다.

철민어린이는 선생님잔등에 업혀다니면서 수학공부를 하였다. 그는 2달만에 1학년 교재를 완전히 떼고 3달만에는 3학년 과제를 끝마치게 되였다.

학교에서는 그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해당한 절차를 밟아 1990년 7월 전국인민학교속셈경연에 방청으로 참가시켰다.

경연장소객석에 4살의 어린이가 앉아 선생님과 함께 속셈을 하는것을 본 심사원들은 호기심이 생겨 경연이 끝난 다음 그의 재능을 직접 알아보았다. 그는 만단위까지의 속셈을 훌륭히 할뿐아니라 응용능력도 대단하였다.

이때부터 철민어린이는 수재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사회와 집단, 교육일군들에 의해 배움의 교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였다.

한편 나라에서는 신동이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자면 학습조건이 잘 보장되여야 한다며 1991년 4월에 그의 가정에 과학자아빠트를 배려해주었으며 그의 지능계발에 필요한 참고서들을 계통적으로 보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광제대학 박사원 원장선생을 비롯하여 유능한 교수, 박사 선생들이 그의 과외수업을 지도해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철민어린이는 오늘 전자계산기에 의한 프로그람을 솜씨있게 작성하여 도형과 꽃을 텔레비죤화면에 그리는 정도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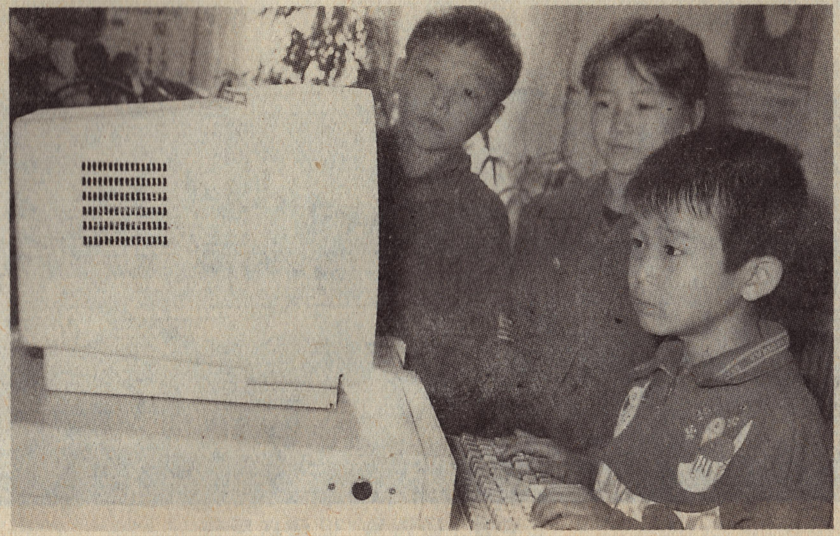
고운 꽃이라도 훌륭한 원예사가 정성다해 가꾸어야 아름답게 필수 있듯이 아무리 영특한 두뇌를 가졌어도 그를 귀중히 여기고 가꾸어주는 사회와 집단, 제도가 없이는 그 재능의 꽃을 활짝 피울수 없는것이다.

오늘 철민어린이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시대의 인간으로, 기초과학지식을 원만히 갖춘 우수한 과학자로 자라나기 위해 나라의 깊은 관심속에 신의주시 동하인민학교에서 교육받고있다.

지금 그의 건강은 아주 좋다. 그의 성격상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것은 나이 어리지만 자기보다 큰 학생들과 잘 어울려 놀며 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남을 깔보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진지한 탐구력을 가지고 인내성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다. 그리고 명랑하고 성실한것, 발표력이 있고 경쟁심이 높은것 등이다.

그것은 10대에 수학박사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반드시 실현케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갑송



프로그람작성에 열중하고있는 철민어린이

기 행 동해기슭을 따라

우리 나라 최북단 선봉으로부터 천하명승 금강산에 이르는 천리동해기슭에는 주체공업의 위력을 시위하는 공업기지들이 웅장하게 일떠섰으며 산은 산마다 백과가 주렁지고 들에는 들마다 황금나락이 설레이고있다.

지난 11월초, 우리는 날로 변모되는 동해기슭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취재길에 올랐다.

북변의 자랑

선봉은 송진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서고 조산만의 잔잔한 바다가 펼쳐진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있다.

오랜 세월 두만강이 흘러내리면서 생겨난 선봉벌이 바다기슭에 무연히 펼쳐져 만포, 서번포, 동번포와 같은 바다자리호수를 아늑히 감싸고있다.

우리는 바다기슭에 오붓이 자리잡고있는 우암마을에서 한생을 살아온다는 박로인을 만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기후가 랭습하고 여름에는 안개가 끼는데다가 벌의 대부분이 진펄이여서 왁새풀만이 무성하던 고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가 승리적으로 완성된 이듬해인 1959년 3월 이곳을 찾아주시여 군을 단위로 하는 전민소유제의 종합농장을 조직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이 군에서는 축산을 주로 하면서 수산업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켜 유리한 자연경제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선봉종합농장은 강력한 축산기지와 수산기지 그리고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높은 단계에 올라선 알곡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우리는 박로인의 안내를 받으며 농촌마을이며 우암젖소목장, 우유가공공장을 돌아보았다.

마을마다 수도화, 텔레비죤화, 뻐스화, 농촌진료소의 병원화가 실현되여 문화생활조건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줄어들어 집집마다 고상하고 락천적인 사회주의문화정서생활이 활짝 꽃펴나고있었다.

우리는 이 풍요한 농촌전경에 심취되여 뜨기 아쉬운 걸음을 선봉과 잇닿은 라진지구로 돌렸다.

선봉만을 떠나 남으로 해안선을 따라 내려와서 선정단을 에돌면 호수와 같이 아늑한 라진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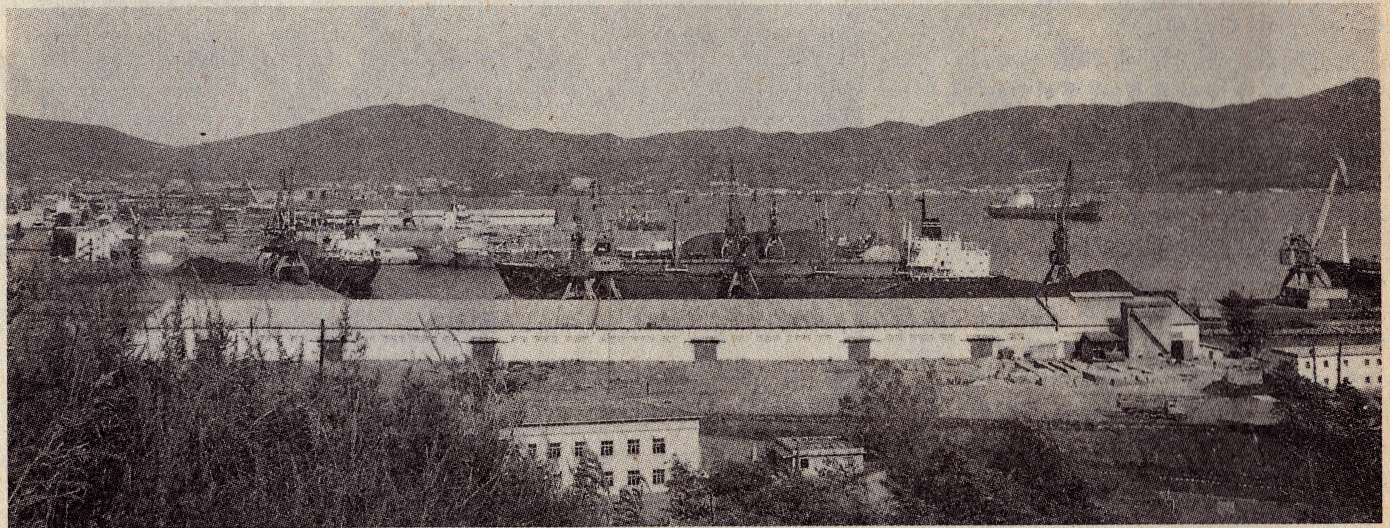
우리가 만안에 자리잡고있는 라진항에 도착하였을 때는 중낮이 기운무렵이였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바다바람이 세차게 불어쳤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라진항 항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고장의 날씨란 곰살궂을 때에는 새색시같이 얌전하고 차분하다가도 변덕만 부리면 돌멩이를 날리웨다. 이런 날씨에 만앞에 있는 소초도와 대초도가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린 벌써 복닥소동을 피웠을 겁니다.

참말 라진항은 좋은 자리에 틀고앉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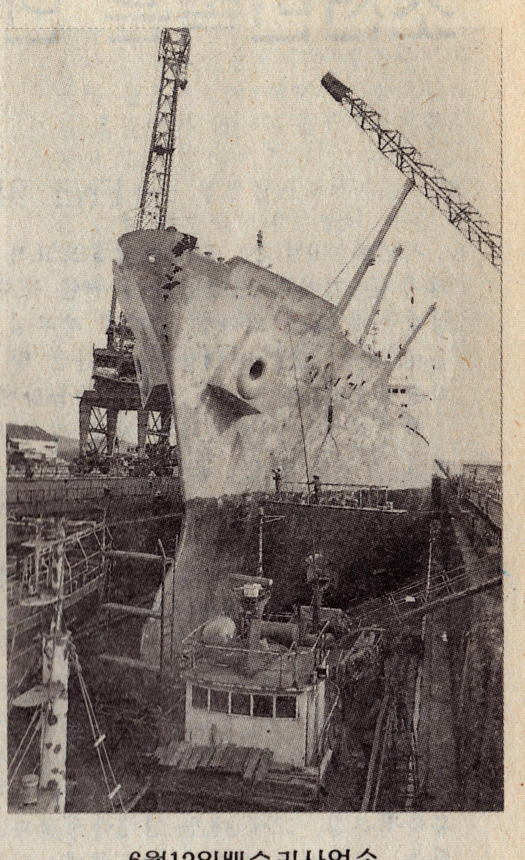
라진항의 일부



과연 아득히 펼쳐진 수평선가운데 소초도와 대초도가 거연한 모습을 드러내며 솟아있었다.

우리는 각종 기중기며 기계설비, 짐보관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항구내를 돌아보았다.

항에 여러 척의 외국선박들이 정박하여 짐을 싣고부리우는가 하면 구내철길로는 화차들이 분주히 오가는것이 마치 약동하는 거창한 건설장을 방불케 했다.



6월12일배수리사업소



우암젖소목장

항장은 기중기들의 작업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라진만기슭의 바다물깊이가 깊어 큰 배도 얼마든지 항에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장차 라진항은 천만톤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항구로 발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 나라 해운계에서 중추는 라진에 있는 해운대학졸업생들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면서 항과 선박의 관리운영은 그들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

라진－선봉시는 바다가를 따라 새롭게 거리를 형성하고있었다.

넓은 길 량쪽에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봉사망들이 들어앉았다.

라진지구의 공업은 화학공업, 전력공업, 채굴업 등 중앙공업과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등의 지방공업으로 구성되여있었다.

중앙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87%인데 승리화학련합기업소는 이고장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저녁무렵, 우리는 시행정경제위원회 허태헌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오늘 동북아세아나라들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라진－선봉시를 가리켜 《황금의 삼각주》라고 한다고 했다.

그것은 라진－선봉시가 중국, 로씨야와 린접해있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쉽게 드나들수 있는 해상운수상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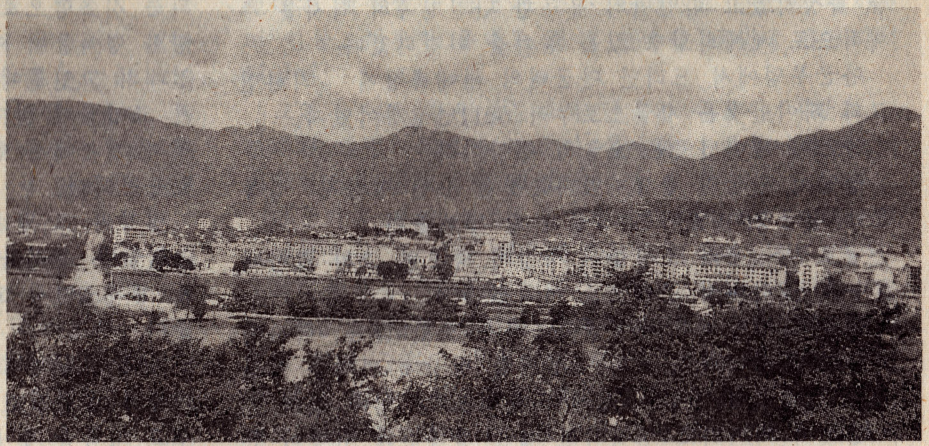
그리하여 장차 라진－선봉시는 여러 나라들의 경제 활동과 교류에 편리를 도모해주게 된다.

허부위원장은 계속해서 라진－선봉지구에는 국제비행장과 국제무역항, 국제통신쎈터 등의 거창한 대건설이 예견된다고 하였다.

참으로 가슴을 후덥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제 몇해후이면 이고장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터이니 그때 다시 와보라는 허부위원장의 작별인사를 받으며 우리는 라진역사로 걸음을 옮겼다.

본사기자 조광열



근로자들의 살림집 일부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 진행—

지난해 10월 2일 단군릉발굴보고가 로동신문에 게재되여 온 겨레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의 단일성확증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고있는 가운데 10월 12일과 13일에는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가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리였다.

발표회에는 사회과학원 원장 김석형과 박시형, 김하명을 비롯한 원사, 교수, 박사들, 력사학, 고고학 및 어문학부문 학자들, 대학교원들,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력사학, 고고학, 언어학, 문학계의 원사, 교수, 박사, 연구사들이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킨 론문들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들은 최근 단군릉이 발굴되고 단군이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로 확인되여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완벽하게 해명할수 있게 되였다고 긍지 높이 이야기하면서 단군릉의 발굴정형과 거기에서 나온 사람뼈의 인류학적특징, 그에 대한 년대측정결과, 단군의 출생과 활동,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문제, 단군의 건국사실을 전한 《위서》, 《단군신화》의 주요특징,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 일제가 감행한 단군말살책동, 고조선시기부터 써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자, 단군과 대종교, 단군숭배와 관련한 의례와 풍습,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 등의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그 일부 토론내용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사는 인류력사에서 첫번째 계급사회, 노예소유자사회의 력사이다. 매개 민족의 력사에서 문명시대의 출발점으로 되는 첫 국가의 형성기는 소여 민족사의 유구성을 규정하는 리정표로 된다.

이번에 단군릉에서 발굴된 사람뼈에 대한 과학리론적해명이 정확히 이룩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 력사의 시조인 단군을 신화적존재가 아니라 실재한 인물임을 확정하였고 반만년의 유구한 단일민족의 력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할수 있는 열쇠를 마련하였다.

단군무덤에서 드러난 단군뼈의 년대측정에 의하면 그가 태여난것은 지금으로부터 5011년전경이였다.

단군이 태여난곳은 오늘의 평양이다.

평양이 단군의 출생지였다는것은 우선 평양시 강동군에 단군릉이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고향에 묻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다.

단군이 평양에서 태여났다는것은 또한 많은 력사기록들과 전설에서 단군의 출생지를 평양에 가까운 명산들과 결부시켜 전한 사실에 의해서도 잘 알수 있다.

단군이 태여나고 성장하던 때는 종족간의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였다.

추장의 아들로 태여나 성장한 단군은 기원전 3000년기초에 도읍을 평양성에 정하고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의 국호를 옛 기록에서는 《조선》(고조선)이라고 하였고 건국자를 《박달임금》이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 한자로 옮겨쓰면서 《단군》이라고 하였다.

《박달(배달)》이란 단군의 아버지켠 종족이 오래전부터 자기의 종족명으로 불러온 명칭이였으며 후에 우리 민족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였다.

나라를 세운후 단군은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거나 길쌈, 집짐승기르기와 같은 생업에 열중하게 하였고(《규원사화》) 지난날의 락후한 생활방식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문명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변혁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켜 국력을 강화한 단군은 주변종족들을 통합하면서 령토를 넓혀나갔다. 단군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평양일대에서 작은 나라로 발족한 고조선은 광대한 령토를 가진 국가로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단군은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 미개한 원시상태에 처하여있던 5000년전에 벌써 고조선을 선진문명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고대 우리 겨레를 대표하는 력사적인물로 등장하였다.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였다.

오늘의 평양이 단군조선 당시의 수도 그 중심지였다는것은 《삼국유사》고조선조에 인용된 《고기》에서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도읍한곳을 명백히 평양성이라고 밝힌것을 비롯하여 여러 옛 문헌기록들에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 고조선의 도읍지인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

그 근거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이 평양일대에 가장 많이 집중되여있고 고인돌의 기원과 관련되는 시초형으로부터 중기형, 말기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들이 다 보인다는 사실이다. 뿐아니라 평양일대의 고인돌떼속에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히 규모가 큰 고인돌이 많다는것과 이 일대에서 드러난 부락터유적과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도 잘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평양과 그 일대에 수많이 남아있는 고인돌과 집자리유적들은 유리한 자연환경속에서 고조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고대문화를 발전시켰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고대이후 우리 조상들은 그가 어디에서 살든지간에 우리 민족에게 선진문명을 가져다주고 민족을 빛내여준 고조선의 창건자 단군을 민족의 시조왕으로 높이 내세우고 숭배하였으며 력대적으로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력사와 문화를 련면히 계승하여왔다.

그 계승성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자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는것이다.

옛 문헌기록에 의하면 우리 민족 고유의 글자인 훈민정음창제자체가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니라 옛 문자에 기초한것이였다.

고조선시기에는 이미 신지글자가 있었으며 우리 반도의 북쪽 륙진지역에서부터 남쪽의 남해지역에 이르기까지,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고조선령토 전지역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지역에서 쓰이여왔다.

신지글자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글자 훈민정음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세종실록》25년 12월조에는 《이달에 임금이 어문 28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본땄다.〉(자방고전)》고 하였으며 당시의 집현전 대제학이였던 정린지도 《훈민정음》(해제)에 쓴 머리글에서 《글자는 옛 전자를 본땄다.》고 썼다. 여기서의 《옛 전자》는 《신지글자》를 가리키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단군을 실재인물로, 단군조선을 민족의 첫 국가로 보고 고조선때부터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으로서 그 공고성과 계승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이러한 전통적관념은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교활한 책동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였다.

일제는 단군조선을 말살하지 않고서는 《우수한》야마또민족이 《렬등한》조선민족을 지배해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식민지지배설을 합리화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일제는 력대 조선총독과 정무총감들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직적인 조선사위조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916년 10월 구월산의 단군사당인 삼성사에서 진행한 단군에 대한 제사의식을 강제해산시키고 삼성사를 폐쇄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단군과 관련한 일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만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단군말살책동에 의하여 단군을 실재인물로 우리 민족사의 원시조로 인식하여오던 조상전래의 전통적인 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 허황한 존재로 보는 관념이 세상에 류포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번에 단군릉에서 단군의 유골이 나왔고 그 년대가 확정되므로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단군이래 우리 선조들은 5천년간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왔으며 그 기간 이룩해놓은 혈연적단일성, 언어, 문화적공통성, 공통한 민족적기질과 감정, 정서는 분단 수십년동안에 생겨난 이러저러한 차이성보다 헤아릴수 없이 강하고 우월하며 이러한 강한 민족적공통성은 우리 민족성원모두를 뗄래야 뗄수 없는 견고한 뉴대로 련결시키면서 분단조국의 통일성업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희귀한 천지산천어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으로 이름높을뿐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풍치와 특이한 동식물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세상에 자랑떨치고있다.

최근 수로국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서는 백두산천지에 대한 탐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희귀한 천지산천어를 잡았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이 천지산천어의 몸길이는 72센치메터, 몸무게는 5.1키로그람에 달한다.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들에 의하면 강하천상류에서 사는 산천어들은 보통 길이가 15~20센치메터이며 무게는 100그람 정도 되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전례없이 크게 자란 이 천지산천어를 연구분석한 결과 12년생의 산천어라는것이 밝혀졌다.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은 동물학계에 파문을 일으킨 이 산천어는 다름아닌 1984년에 백두산천지에 놓아준 산천어들이 근 10년간 자라난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1981년 6월 수로국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를 무어주시고 백두산천지의 기상수문학적, 지형학적 및 생물학적 특징과 그 변화법칙을 종합적으로 조사탐험하여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있는 백두산의 비밀을 밝혀내도록 해주시였다.

탐험대원들은 백두산천지에 대한 종합탐험을 진행하면서 천지에 맑은 물을 좋아하는 산천어가 서식할수 있다는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1984년에 무포에서 잡은 100여마리의 어미산천어를 천지에 놓아주었다. 이 산천어들은 다른 호수나 강하천에서보다 잘 자랐으며 많은 알을 낳았다.

지금 백두산천지에는 수천수만마리의 산천어들이 떼지어 살고있는데 몸길이가 30~50센치메터되는것들이 많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1992년 12월 종합탐험대원들이 올린 천지의 산천어를 보시고 천지의 특수한 수문학적조건과 생태학적환경에 완전히 적응된 이 산천어에 **《천지산천어》**라는 뜻깊은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백두산천지의 비밀이 밝혀지기전까지만 하여도 화산분화구에 생긴 호수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들이 살수 없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종합탐험결과 백두산천지에서는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들이 살수 있다는것과 물고기의 서식에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백두산천지에 천지산천어들이 떼를 지어 욱실거리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지산천어가 자라나게 된것은 천하명산 백두산에 늘어나는 또 하나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비류와 온조

—백제의 건국설화—

고주몽이 고구려를 창건하고 왕으로 된지 19해째되는 기원전 259년 봄 부여에서 살고있던 그의 첫 아들 유류가 고구려로 와서 왕세자로 책봉되자 고구려왕궁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였다. 그것은 고주몽의 세번째 안해인 이전 구려국왕의 둘째공주에게서 태여난 비류와 온조(그들은 고주몽의 두번째 안해 소서노의 몸에서 태여난 아들이라는 말도 있다.)가 아버지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고구려는 구려국의 후신으로서 왕위계승자는 마땅히 구려국의 혈통에서 선정되여야 할것이다.》

비류, 온조 두 형제의 불만은 바로 이러했다.

사실 고주몽이 유류를 왕세자로 책봉한것은 유류가 비류나 온조에 비해 인물과 재주가 뛰여났기때문이였다. 이것은 고구려를 장차 강대한 국가로 되게 하기 위해 필요했고 또 응당 그렇게 되여야 했다.

그러나 비류와 온조는 그것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불만이 컸으나 아버지가 일단 결정한 문제였으므로 어쩔수가 없었다.

비류와 온조는 의논끝에 마침내 고구려땅을 떠날것을 결심하였다. 그것은 구려국왕족의 후예들인 자기들도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보려는 포부가 있었기때문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유류가 왕이 되면 배다른 형제인 자기들에 대해 박해를 가할가봐 두려워서였다.

그들이 고구려땅을 떠날 때 오간, 마리 등 10명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였다. 비류와 온조를 따라나선 사람들로 말하면 고주몽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옛 구려국의 신하들이였고 유민들이였다.

비류와 온조는 무수한 산과 강을 넘어 멀리 남쪽으로 내려갔다. 어느날 한산이라고 하는 산마루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니 산천경개가 매우 아름다운데다가 기름진 벌이 남쪽을 향해 무연히 펼쳐져있었다.

뭇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뛰여다녔고 드문드문 모여앉은 부락들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비류와 온조가 여러 부락들에서 이곳 사람들의 신세를 지며 알아보니 이고장 사람들은 모두가 어질고 근면한 옛 고조선의 유민들이였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한수(오늘의 한강)와 서해바다가 합쳐지는곳(오늘의 인천시지방)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비류와 온조는 난생처음 바다를 보았고 난생처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광경을 신기하게 목격하였다.

저녁이면 서쪽 하늘에서 해가 불덩이 같은 형체를 바다물에 서서히 잠그는 광경도 또한 처음 보는 장관이였다.

어느날 동생 온조는 비류에게 《형님! 아무래도 한산쪽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야 할것 같아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봤댔자 그만한 고장이 있을듯싶지 않으니 이젠 발길을 멈추는것이 어때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류는 견해를 달리하는것이였다.

《아니다. 내 생각에는 새 나라의 도읍을 바다가에 정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륙지에서는 농사와 사냥으로 생업을 돕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들이면 생활이 풍족해질게 아니냐.》

비류가 이렇게 주장하는것은 바다에 대해 지나치게 매혹을 느꼈기때문이다. 그는 바다가에 도읍을 정하는것은 여러 모로 좋지 않다는 동생의 설복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같이온 열 신하들도 간청하였으나 비류는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두 형제는 합의를 보지 못한채 백성들을 나누어가진 다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여졌다. 비류는 바다가로 향했고 온조는 한산쪽에다가 새 나라의 도읍을 정했다.

온조가 세운 나라의 첫 이름은 《십제》였다. 이것은 온조를 따라온 10신하의 도움으로 세운 나라라는 뜻이였다. 그런데 서해바다가로 간 비류는 온조와는 달리 건국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말았다.

그 리유는 무엇보다도 도읍지가 적당치 않았기때문이다. 바다가는 해풍이 심하고 랭기와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농업이 기본경제였으므로 농업의 파탄은 건국사업에서 실패를 가져오게 한 근본원인이였다.

비류는 바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데다가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있었다. 물고기만 잡아가지고서는 부를 늘일수가 없었으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수가 없었다.

비류는 아무리 애써 봐야 나라의 면모를 세워낼 재간이 없었다. 실패의 쓴맛을 본 그는 동생 온조가 세운 십제에로 와보았다. 그동안 온조는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있었으며 번듯한 궁궐을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정사를 펴나가고있었다.

어데를 둘러봐야 나라의 면모는 갖추어졌고 백성들은 안착되여 생업에 힘쓰고있었다.

온조가 세운 나라는 비류가 세운 나라에 비할바가 못되였다. 온조는 반갑게 형을 맞이했으나 비류는 동생앞에서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후회와 비감에 잠긴 그는 고민하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후 비류를 따라갔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온조에게로 왔다.

온조는 점차 나라가 부흥해지자 국호를 《백제》라고 고치였으며 수도를 부여로 옮기였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3세기중반기의 일이다.

그후 백제에서는 백제국가의 시조 온조가 고주몽의 아들이였으므로 백제의 원조상을 동명왕 고주몽으로 일컬으며 섬기는 풍습이 한동안 계속 되였다고 한다.

력사학박사 전준현

반일의병장 류린석

우리 나라 력사에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외래침략자들과 용감하게 싸운 애국지사들이 수없이 많다.

반일의병장 류린석도 바로 그중의 한사람이다.

1842년 1월 강원도 춘천의 한 유생의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국심이 강하고 뜻이 높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과정에 류린석은 열렬한 애국심을 키웠으며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치려는 각오를 굳게 다지였다.

당시 조선인민의 애국투쟁에는 크게 두가지 조류가 있었다.

하나는 외부의 침략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적인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였고 다른 하나는 《개화》의 기치밑에 봉건적인 제도와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였다. 그중에서 강렬하고 농후한것이 첫번째 움직임이였다.

이 사상조류는 비록 보수적인 색채를 띠기는 하였으나 철저한 애국주의를 반영한것으로서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초에 걸치는 기간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운동에서 기본주류를 이루고있었다.

류린석은 바로 《외적격멸》,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반일의병투쟁의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활동하였다.

1895년 서울에서는 일제침략자들이 당시 우리 나라의 왕이였던 고종의 처 민비를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도처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의병투쟁이 전개되였다. 의병투쟁은 강원도지방에서 제일먼저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류린석이였다. 그때 류린석은 이미 생애의 황혼기에 들어선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의병들과 인민들의 추대를 받아 의병장의 중책을 지닌 류린석은 자기의 감정을 다음과 같은 시구절에 담아 표현하였다.

병들고 늙은 몸 의병장의 책임
　어이 감당하랴만
부끄럽고 분한 마음 금할수 없노라
기상은 별빛아래 산악과 같고
마음은 바다처럼 맑고 푸르구나

그해도 다 저물어가는 12월하순 의병장 류린석은 전국 8도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들어있다.

《우리 강토는 비록 작으나 사람은 백배의 기운을 낼수 있으니 불구대천의 원쑤들에 대한 복수심은 절절하다.… 일찌기 훌륭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겨레가 언제 오랑캐로 변한적이 있었던가. 죽기를 맹세하고 왜적을 치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서자!》

류린석의 의병부대는 그 길로 충청도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싸웠으며 이듬해 1월에는 충주로 쳐들어가서 관찰사(도의 행정우두머리)를 비롯한 여러 고을의 친일군수들을 단호히 처단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린근의 여러 고을의 인민들이 의병을 뭇고 그에 호응하였다.

일제침략자들과 과감한 격전을 벌리던 류린석은 전반적인 정세의 추이로 보아 단시일내에 왜적들을 몰아낼수 없음을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대를 이끌고 서북지방으로 빠져서 그해 8월에 중국 료동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료동지방과 남만일대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인청장년들을 훈련시켜 힘을 키운 다음 국내외에서 왜적들과 장기전을 진행할것을 계획하였다.

1897년 8월 류린석은 왕의 부름을 받고 초산지구로 나왔다. 여기에서 그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죽더라도 적은 반드시 쳐야 하며 원쑤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왕앞으로 보냈다.

국내에서 류린석은 의병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왜적들과 한짝이 된 매국적인 통치배들은 1900년 7월에 그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였다. 이때부터 류린석은 공개적인 활동을 할수가 없었다.

류린석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평안도와 황해도, 강원도 일대를 은밀히 래왕하면서 각지 의병들의 투쟁을 지도하였으며 인민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고취하였다.

그는 당시의 애국지사치고는 남달리 원대한 포부와 뜻, 비상한 전개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였다. 1904년 일제는 로일전쟁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다시금 많은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 땅에 들이밀었다. 일본침략자들에 의한 우리 나라의 완전한 강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이 위급한 시기에 류린석은 조국과 인민 앞에 닥쳐온 위험을 우려하면서 최익현 등 여러 애국지사들과 함께 구국대책을 강구하는데 더한층 심혈을 기울이였다.

일제가 파렴치하게 《을사5조약》, 《정미7조약》을 련이어 날조해내자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잃고 맥을 놓을 때에도 류린석은 원산, 개성, 서울 등지를 다니면서 각지의 의병들에게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나라에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강한 나라라고 하여 반드시 언제나 강한것도 아니요, 약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약한 법도 아니다. 강하다고 하여 자만하면 약해져 망할것이고 약한것을 우려하여 분발하면 강해져서 독립을 보전할것이다.》

이것은 류린석이 늘 의병들에게 강조하는 주장이였고 신념이였다. 이와 같은 높은 애국정신과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하여 류린석은 의병들과 인민들의 두터운 존경을 받았다.

1908년 7월 류린석은 일제침략자들의 감시를 피하여 반일의병운동을 벌리기에 유리한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로 자리를 옮기였다.

그해 10월에 그는 리범윤과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의병부대를 조직하였으며 리범윤에게 의병장의 중책을 맡겨주었다. 이와 함께 류린석은 리범윤에게 자기가 작성한 《의병규칙》35개 조항을 넘겨주었

다.

《의병규칙》35개 조항에서 류린석은 일치단결이 없으면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성공할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의병부대내부의 단결, 의병부대들호상간의 단결, 나아가서 전체 인민의 일치한 단결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류린석의 이러한 립장은 당시의 의병투쟁에서 기본적인 결함으로 되고있던 통일적인 지도의 결핍, 호상 밀접한 련계의 결여, 자연발생성 등을 고려해볼 때 매우 정당하고 적절한것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는 의병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된것은 결국 분렬때문이다. 그대들은 피가 흐르는 력사의 이 교훈을 잊지 말고 부디 애국의 한마음으로 단합하라. 그래야 오늘의 불행을 제거할수 있다.》

1909년 가을 중국 할빈역두에서는 애국렬사 안중근이 일제침략자들의 괴수 이등박문을 통쾌하게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안중근의 의거는 우리 나라의 모든 애국지사들을 격동시켰다. 이 의거가 있은 직후 류린석은 상해에 있는 한 권위있는 신문사에 기고하여 글을 냈는데 그 글을 통하여 그는 안중근에게 결코 죄가 없다는것, 그의 행동은 찬양받을만한 행동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한편 류린석은 안중근의 의거가 비록 장하기는 하지만 이등박문 같은 놈 하나를 죽인다고 하여 일이 다 되였다고 할수 없다는것, 일본침략자들을 모조리 쳐없애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1910년 5월 류린석은 13도 의병도총재(총사령)로 추대되였다. 그는 해외에 있는 의병장 리범윤, 함경도의병장 리남기, 황해도의병장 우병렬을 비롯하여 홍범도, 리강년, 리상설, 안창호, 리갑 등 의병장, 정치인들을 묶어세워 의병운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

류린석은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완전히 병합하고 이른바 일본에 《합병》하였다는 소식을 해외에서 들었다.

이 가슴아픈 비보에 접하자 류린석은 여러 동지들과 함께 련명으로 일제의 강제《합병》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세계각국 정부들과 인민들에게 보냈다. 이와 함께 류린석은 단호한 용단을 내려 연해주와 만주 등 여러 지역에 널려있는 조선인청장년들을 무장시키고 집결시켜 국내에로 진격할 차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그의 이 웅대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말았다. 그것은 일본측의 압력을 받은 로씨야관헌들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련합부대를 무어 조선으로 진격하여 판가리싸움을 벌리려 한다는 소식에 접한 일제는 크게 놀라 해당 지역의 로씨야관헌들에 강경한 통첩장을 보냈다.

로일전쟁에서 참패당한 로씨야측으로서는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류린석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뜻은 실현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로씨야관헌들의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말았다.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였다.

최후의 결심이 수포로 돌아가자 류린석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원통해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을 그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그때로부터 류린석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나이로서 겨레앞에 떳떳이 나설수가 없다고 간주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역땅에 있으면서 생애의 말년까지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중국에서 손문의 지도밑에 신해혁명이 일어나 만청정부가 꺼꾸러졌을 때 류린석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중국정부에 축하서한을 보냈다.

그는 봉건적인 압제와 외래침략세력의 무력간섭밑에서 신음하는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인민의 불우한 처지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았던것이다.

1914년 봄 류린석은 제 나라 가까이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울라지보스또크를 떠나 중국 남만의 관전현으로 옮겨앉았다.

여기에서 그는 독립운동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 그들의 사업을 사심없이 도와주고 고무해주었으며 저술과 대중교양사업에 힘썼다.

비록 늙고 병든 몸이였으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류린석의 애국충정에는 티가 앉을줄을 몰랐다.

1915년 1월 류린석은 이역땅에서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는 조선의 독립을 마음속으로부터 기원하였다 한다.

이름난 반일의병장으로서 한생을 굴함없이 일제와 싸운 류린석의 이름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본사기자



경성읍성

경성읍성은 고려시기에 처음 쌓고 리조중기에 고쳐 쌓은 대표적인 평지성이다. 이 성은 함경북도 경성군 승암로동자구에 있다.

경성은 본래 강대한 고구려의 땅이며 그후는 고구려를 이은 발해의 령토로 되여있었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이곳에 살던 일부 녀진인들이 고려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략탈하는 등 만행을 감행하였다. 고려봉건국가는 1107년에 윤관을 총지휘관으로 하는 원정군을 이곳에 보내여 녀진인들을 소멸케 하고 북방방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

지금의 경성읍성은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졌다. 성의 동서길이는 약 810메터이고 남북너비는 290메터이다.

경성읍성은 큰 돌로 쌓았다는 점이 다른 성과 구별된다. 이 성의 돌은 길이 1.5메터, 너비와 두께는 60~80센치메터를 넘는 큰 돌들이다. 그리고 성벽의 기초에는 막돌과 자갈을 다져넣었다. 그러므로 성벽이 매우 든든하다.

성벽의 높이는 7~10메터, 두께는 아래부분이 8메터, 웃부분이 3~4메터 정도이다.

성문은 동, 서, 남, 북 네면에 정연하게 세웠다. 이 문들은 모두 무지개문길을 낸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되여있다.

남문은 이 성의 정문인데 2층으로 된 웅장한 문루가 지금도 서있다. 성벽우에는 숨어서 적을 쏠수 있게 한 성가퀴가 있다.

앞에 쌓은 성가퀴마다에는 7개씩 총구멍을 뚫어 적들이 좌우쪽의 어느 방향으로 달려들어도 쏠수 있게 하였다.

경성읍성은 당시 함경도지방 군사중심지의 하나로서 지방통치기관인 도호부와 여러 고을의 군대를 지휘하는 북병사가 자리잡고있었다. 그러므로 성안에는 각종 군사관계 건물들과 관청들이 꽉 들어차있었다. 일반주민들은 성밖에서 살다가 유사시에는 성안에 들어가 싸웠다.

성안에는 많은 식량을 저장할수 있는 창고들과 1,000여정의 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보관할수 있는 무기고들이 있었다.

경성읍성에는 물이 풍부하였다. 기록에는 12개의 못과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경성읍성에는 외래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적인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다.

1592년 7월 임진조국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을 때 가또 기요마사를 우두머리로 한 2만여명의 왜적들이 이곳 경성지방에 기여들었다. 이때 우리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조국강토에서 몰아내는 거족적인 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섰다. 당시 이곳 인민들은 젊은 의병장인 정문부의 지휘밑에 성으로 쳐들어오려던 일본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이 지역에서 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냈다.

이처럼 경성읍성은 외래침략자들을 쳐이긴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를 수놓은 자랑스러운 성인 동시에 리조중기의 전형적인 성새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